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전복(全鰓) 진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강영삼

2012년 2월



조선시대 전복(全鰓) 진상 연구

지도교수 김 동 전

강 영 삼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강영삼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인

위 원_____인

위 원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2년 2월



The abalone offering in the Joseon dynasty

Kang Young-Sam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2.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circular emblem. It features a stylized flame or torch in the center, with the letters 'JNU' below it.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is written around the top inner edge of the circle, and '제주대학교' is written around the bottom inner edge.

Abstract

The abalone offering in the Joseon dynasty

Throughout history, power has shifted downwards. It runs downwards and spreads out to its surroundings without obstruction or resistance under the proposition of custody and control.

People showed the signs of their obedience to power, of which the one was an offering to the king. Their offering was meant to devote their treasure to the high. It was to pay a tribute to their king or superior officer, apart from their tax and their corvee which were required to support a country's system and finance. Among the tributes was an abalone included, which was considered an unusual item at that time. That's because it was regarded as rare and invaluable. In those days, it had to be caught in so deep an ocean of some areas that it needed the divers' know-how and pains. In addition, it was the kind of a living thing that could go sour easily. It was presented to the palace, where it was special food. Thus, it was always served on the king's dining table even when he went on a long journey outside the palace. And it was also used as a typical present offered to Chinese emperors, let alone an offering for the important national memorial service.

In the Joseon dynasty, which had been based on the king and the formality, an abalone was considered so precious that the courtiers and the local officials made all efforts to supply it to the king. Its national offering was surveyed in this thesis on the basis that Jeju's women divers had gone out for it throughout the country since the Joseon dynasty. First of all, more than 20 terms referring to an abalone, which were shown on the historical documents, are surveyed in this thesis. Second, there were its habitats found in 「Jiriji」 of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hose of the whole country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Sinjeung-dongguk-yeoji-seungram (Newly Revised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the Eastern Kingdom』 and 『Yeojidoseo』. Finally, 『Yeojidoseo』 and 『Gongseonjeonrae』 including the national towns or Eupji were utilized to compare the amount of their offerings from every region in a contemporary way. During the process of surveying, this thesis was intended to look at and study the abalone offering at the national stand as well as possible.

However, making a general overview of the amount of their offerings or the local weight of the day and the importance of Jejudo as the region of an abalone offering, this thesis was faced to the challenge which made the study limited to Jejudo. For that reason, this came to an end by dealing with the challenge and investigating the facts of the supplying field through the approach to avoid a duplication of the established studies.

목차

Abstract

I. 머리말	1
II. 전복 진상품 명칭과 생산지역	5
1. 전복 진상품의 명칭	5
2. 전복의 생산지역	7
III. 전복 진상품 내역과 물량	14
1. 충청·경상·전라도의 전복 진상 내역	14
2. 함경·황해·강원도의 전복 진상 내역	22
3. 제주지역의 전복 진상 내역	24
IV. 진상 전복의 조달과 채취	28
1. 진상 전복의 조달	28
2. 전복 채취 방법과 도구	33
V. 진상 전복의 용도	39
1. 진상 경로와 담당 각사(各司)	39
2. 진상 전복의 용도	42
VI. 맺음말	44
참고문헌	46
부록	49

표 목차

<표 1> 진상품 전복의 명칭	7
<표 2>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전복 생산 지역	8
<표 3>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의 전복 생산 지역	10
<표 4> 『여지도서』의 전복 생산 지역	11
<표 5> 18세기 충청도의 전복 진상내역(자료 : 『여지도서』)	15
<표 6> 18세기 경상도의 전복 진상내역(자료 : 『여지도서』)	18
<표 7> 순천 지역의 전복 진상 내역	20
<표 8> 순천지역 전복 진상 내역(세자궁)	21
<표 9> 함경도의 전복 진상내역(자료 : 『輿地圖書』)	22
<표 10> 18세기(『공선정례』, 1776년) 각도별 전복진상물량	26
<표 11> 17세기 중반 제주 지역 진상 전복 내역	30
<표 12> 17세기 중반 정의현·대정현 전복 진상 내역	31
<표 13> 조선후기 제주지역 진상 전복 내역	32

그림 목차

<그림 1> 『세종실록지리지』 전복 산지	12
<그림 2>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복 산지	12
<그림 3> 『여지도서』 전복 산지	12
<그림 4> 전복의 산지 지역별 비교표	13
<그림 5> 생복 생산 지역의 변화(15→18세기 후반)	19
<그림 6> 경상도 및 제주 지역 해산물 진상과 전복 품목	25
<그림 7> 18세기(1776년) 전복진상량 비교	26
<그림 8> 『탐라순력도』의 「병담범주」	33
<그림 9> 태와과 망사리	36
<그림 10> 비창을 들고 있는 잠녀 모습과 빗창	37

부록 목차

<부록 1> 『세종실록지리지』에 실린 전국 전복산지 각 지역의 통공·토산품목	49
<부록 2> 『공선정례』의 전복 진상 내역	51

I. 머리말

전통시대 국가의 재정수요는 기본적으로 조(租)·용(庸)·조(調)에 의존하고 있었다. 조(租)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고, 용(庸)은 일반 백성들이 부담하는 군역(軍役)과 요역(徭役)을 말한다. 조(調)는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각 지역민들로부터 진상(進上), 즉 공납(貢納)이라는 명목으로 토산물을 바치게 하였다.

당시의 토산물에 대한 이해는 현물상납과 관련된 국가제도였던 공물·공납·진상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공물은 조선시대 지방의 토산물을 국왕 및 중앙관아에 바칠 때 그에 해당하는 물품을 주로 지칭하며, 공납은 바치는 행위나 관련 수취제도를 의미한다.

진상이란 각 지방의 토산물을 중앙에 상납한다는 점에서는 공납의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나 지방관들이 토산물을 예물로 국왕의 어선(御膳)을 비롯하여 궁중의 제향, 약재, 빈객접대 등에 쓰이는 물품을 월 1회 상납하는 제도로 이념적으로는 조세적인 성격이 매우 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진상의 품목은 공물과 마찬가지로 군현 단위로 일반민들에게 부담되었다. 특히, 현물 부담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수납과정에서 관리들의 농간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많았고, 국왕에게 바치는 예물이어서 품질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납 혹은 공물제도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미곡으로 대신하는 대납제(代納制)의 시행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진상은 19세기까지 천신제향(薦新祭享), 물선진상(物膳進上) 등 여전히 현물로 바치는 것이 기본이어서 지방차원의 수탈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진상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일본인 학자 다가와고조(田川孝三)에 의해 이루어졌다.¹⁾ 그 후 공납과 공인, 대동법과 연계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진상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²⁾ 황선영의 「조선초기 진상제 연구」는

1)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1964. 그는 조선시대 공물, 진상, 공안(貢案), 공납청부(貢納請負), 공납의 붕괴와 대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2) 오미일, 「18, 19세기 공물정책의 변화와 공인층의 변동」, 『한국사론』14권, 서울대 국사학과, 1985;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2』, 일조각, 1989; 지두환, 「효종대 대동법 논의」, 『한국사상과 문화』(10권), 한국사상문화학회, 2000; 德成外志子, 『조선후기 공납청부제와 중인층공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다가와고조(田川孝三)에 이어 조선 초기 진상의 형태와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하였다. 그는 진상의 종류를 정규적인 것과 비정규적인 것으로 분류하였고, 국가에 필요한 재정을 지나치게 진상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연산군 이후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진상제 기반의 붕괴를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제도로써 진상이 갖는 기능은 절대적이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진상제는 끝까지 존속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³⁾ 전국지리지 분석을 통한 각 지역별 토산물에 대한 검토도 진상 품목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연구되었다.⁴⁾ 주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사촬요』, 『여지도서』, 『대동지지』의 토산물 항목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진상에 대해서는 김동전, 권인혁, 박찬식, 나가모리 미츠노부(長森美信), 정미정, 장윤희 등의 선행 연구가 있다. 김동전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공물진헌의 실상을 말(馬), 감귤, 해산물로 분류하여 살피고, 공물진헌으로 인한 제주도민들의 폐단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을 고찰하였다.⁵⁾ 권인혁은 19세기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민란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주목하여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사회경제구조, 지방관아 재정의 운영실상,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경제생활, 『제주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진상내역과 진상역을 해명하였다.⁶⁾ 박찬식은 19세기 제주지역 진상실태를 진상의 종류와 내용, 『제주계록』에 나타난 진상의 이행실태, 진상의 부담과 제주민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⁷⁾ 나가모리 미츠노부(長森美信)은 제주도 지역의 진상물 조달과 상납문제를 해상수송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우마류, 해산류, 감귤류, 약재류의 조달과 수송문제에 있어 진상선 구성과 항해, 수송경로 등에 대하여 살폈다.⁸⁾ 정미정은 조선시대 제주 특산물의 하나인 감귤에 주목하여 감귤진상을 위한 과원 조성과정, 과원의 위치, 감귤 진상의 실상, 과원직, 감귤진상의 과정과 폐단, 그리고 과원의 현재 위치를 집중적으로 해명

3) 황선영, 「조선초기 진상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83.

4) 배재수, 「조선전기 국용임산물의 수취 - 전국지리지의 임산물을 중심으로」, 『한국임학회지』93-3호, 한국임학회, 2004; 이기봉, 「조선시대 전국지리지의 생산물항목에 대한 검토」, 『조선시대국용임산물』, 국립산림과학원, 2004.

5) 김동전, 「제주도 공물진헌에 관한 고찰-조선왕조를 중심으로」, 『제주사학』창간호, 제주대 사학과, 1985.

6) 권인혁, 「조선후기 지방관아의 운영실상-제주사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16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6; 권인혁, 『조선시대 화폐유통과 사회경제』, 경인문화사, 2011.

7) 박찬식, 「19세기 제주지역 진상의 실태」, 『탐라문화』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8) 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진상물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23호, 2002.

하였다.⁹⁾ 장유희는 조선 후기 제주도 진상을 『탐라지』, 『남환박물』, 『제주읍지』, 『제주대정정의읍지』, 『탐라지초본』 등 제주지역 읍지류 분석을 통하여 진상실태를 분석하였다.¹⁰⁾

진상품목에서 해산물류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역사학계의 연구는 아니지만, 조선중기 수산물 음식을 다루면서 『음식디미방(飮食知味方)』, 『증보산림경제』, 『규합총서』 등에 나타난 수산물의 종류를 언급하였다.¹¹⁾ 역사학 논문으로 박주희와 김나영의 연구가 있다. 박주희는 경상도 지역의 해산 진상품을 분석하였는데, 어류는 대구어·청어, 패류는 전복·홍합, 해조류는 미역·김, 기타류로 해삼·문어가 조선시대 경상도 해산물 진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밝혔다.¹²⁾ 제주지역의 해산물 진상 실태는 김나영이 전복과 미역 채취를 업으로 삼던 제주지역 포작의 사회적 지위를 해명하면서 17~19세기 제주지역 해산물의 진상 내역을 해명하였다.¹³⁾ 이 외에 조선 후기 어업구조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어물 유통 등 상공업과 관련된 연구들도 있다.¹⁴⁾

필자는 이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산물 진상에서 전복(全鰓)¹⁵⁾ 진상품에 주목하였다. 조선 초기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 중에 토공(土貢)은 전복·인포(引鮑)·추포(槌鮑)·조포(條鮑)·오징어·옥두어(玉頭魚)·곤포(昆布)등 이다.¹⁶⁾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복은 제주의 해산물 중에 가장 으뜸의 진상품이었다. 지방관아에서는 해산물의 진상을 위하여 포작인(浦作人 혹은 鮑作)과 잠녀(潛女)를 특별히 두어서 이들로 하여금 진상에 필요한 해산물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포작인은 주로 전복과 고기 등을 주로 잡아서 진상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반면에 잠녀는 미역 청

9) 정미정, 「조선시대 제주과원 설치와 감귤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7.

10) 장유희, 「조선 후기 제주도 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8

11) 현윤옥, 「조선시대 중기의 수산물 이용에 관한 문헌고찰」,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2) 박주희, 「조선 후기 경상도 해산 진상품 연구」,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2008.

13) 김나영, 「조선 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탐라문화』3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08.

14) 고동환, 「18세기 서울에서의 어물유통구조」, 『한국사론』28, 서울대 국사학과, 1992; 이영학, 「조선 후기 어업에 대한 연구」, 『역사와 현실』35, 한국역사학회, 2000; 이영학, 「조선 후기 어세정책의 추이」, 『외대사학』12,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00.

15) 전복은 생물학적으로 복족강(腹足綱 Gastropoda) 전새아강(前鰓亞綱 Prosobranchia) 전복과(全鰓科 Haliotidae)에 해당한다. 독특한 평면 나선형 껍질에 넓고 비스듬한 각구(殼口)가 있어 귀처럼 생겼고, 껍질에 구멍이 나선형을 이루며 연속적으로 뚫려 있다. 껍질 안쪽은 진주빛 광택이 나고 가끔 무지개 빛깔의 녹색과 푸른색을 띠기도 한다. 전복은 커다란 점착성 발로 바위에 붙어 산다. 이들은 조류(藻類)를 먹으며 세계 각지의 바위가 많은 얕은 바다에 서식한다. 커다란 종(種)을 영국에서는 오르머(ormer), 미국에서는 아발론(abalone), 뉴질랜드에서는 파우아(paua),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와비(awabi)라고 한다.

16) 『세종실록지리지』 제주목, 토공조.

각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와 조개류 등을 주로 채취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진상용 뿐만 아니라, 관아에서 쓰이는 물품들도 모두 담당하였다. 관아에서는 이들의 장부를 마련하여 1년에 포작인은 20필, 잡녀는 7~8필에 해당하는 많은 액수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포작인과 잡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제주지방에서는 이 역이 모두 고역으로 인식되어 6고역에 포함되고 있었다.¹⁷⁾ 세종 25년(1443)에 제주목사로 부임한 기건(奇虔)은 물질하는 포작인과 잡녀의 생활을 직접 목격하고는 제주목사로 재임하는 동안에 전복을 밥상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여, 한 점의 전복도 먹지 않아 제주지역민들로부터 청백리로 칭송받기도 하였다.¹⁸⁾

조선시대 전복 진상은 전복의 산지가 제주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하여 살피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진상품으로서의 전복의 명칭과 산지(產地)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무엇보다 사료에 등장하는 전복의 명칭이 매우 다양하고, 생복을 말리거나 저장하는 방법 등에 따라 명칭에 많은 혼돈이 초래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전복의 전국적인 산지를 살핌으로써 중앙정부의 전복 조달 지역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전복의 산지를 필두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를 통하여 전국에 분포한 조선시대 전복의 산지를 조사하였다. III장에서는 전국의 전복 진상내역을 통해 전복 진상 지역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각도의 진상물량을 동시(同時)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의 읍지가 망라된 『여지도서』와 『공선정례(貢膳定例)』 자료를 활용하였다. IV장에서는 각 지역에서 전복 채취의 실상과 채취 방법, 전복 진상의 어려움과 폐단 등에 파악함으로써 백성들의 전복 진상품 조달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V장에서는 각 지역에서 진상품으로 바쳐진 전복이 어떻게 활용되어졌는지를 17세기의 조리서(調理書)였던 『음식디미방』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17) 김동진, 「18·19세기 답한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분석」, 『역사민속학』3,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18) 『文宗實錄』7券, 文宗 1年 4月 2日 庚午, 「虔 稍習吏事 喜觀諸史 嘗牧濟州 不食鰓魚」.

II. 전복 진상품의 명칭과 생산지역

1. 전복 진상품의 명칭

전국적인 특산물 중에 전복은 일부 지역의 바다에서 생산되었다. 채취가 어렵고 귀하였기 때문에 전복은 진상품 중에서 특수한 품목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전복은 귀중한 해산물이었고, 음식이었다. 심지어 궁궐 밖으로 멀리 행차를 갔을 때에도 임금의 식단에 전복은 포함되어 졌다.¹⁹⁾ 그래서 국왕과 격식을 중심으로 했던 조선사회에서는 전복을 중요시 하였고, 이것을 바치기 위하여 신하와 지방관들은 진상품 조달에 진력하였던 것이다.

사료에 나타나는 전복은 다양하게 명칭이 붙여졌는데 대부분 건조나 가공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 많았다. 현대에 있어서는 전복(全鮑)으로 통칭되고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전복이라 하면 말린 것들을 의미하며 싱싱한 전복에는 생복(生鮑)이란 명칭을 특별하게 사용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순조 때의 수산지(水産誌)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에 ‘신선한 것을 생복, 건조한 것은 전복’이라 하였다.²⁰⁾

한편, 전복의 명칭에서 포(鮑)와 복(鮑)은 같은 뜻으로 혼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전복 명칭들을 나열해 보면, 복(鮑)²¹⁾ 복어(鮑魚),²²⁾ 생전복인 생포(生鮑),²³⁾ 생복(生鮑),²⁴⁾ 큰 전복의 의미인 대전복(大全鮑),²⁵⁾ 산지표시가 더해진 왜전복(倭全鮑, 맛있는 종류를 의미했다)²⁶⁾이 있다. 소금에 절이고 말리는 가공 상태에 따라서 불려진 전복명으로는 말려진 건전복(乾全鮑),²⁷⁾ 중간정도 말린

19) 정조대왕은 어머니 혜경궁홍씨의 회갑연이 있어서 그런지 화성 행차시 세끼 모두의 식단에 전복을 포함시켰다(『園幸乙卯整理儀軌園 (원행을묘정리의궤)』 正祖 19年 윤2月 10日 壬辰).

20) 『牛海異魚譜』 七十六, 以鮮曰生鮑 乾曰全鮑.

21) 『純祖實錄』27券, 純祖 25年 11月 19日 壬寅, 『新增東國輿地勝覽』土産條, 『耽羅志』 土産條.

22) 『文宗實錄』7券, 文宗 1年 4月 2日 庚午, 『茲山魚譜』.

23) 『世宗實錄』11券 世宗 3年1月13日 丙子, 『世宗實錄地理志』; 『燕山君日記』32券, 燕山 5年, 1月 10日 庚午; 『光海君日記』10券, 光海 卽位年 11月 3日 丙戌; 『憲宗實錄』9券, 憲宗 5年 11月 19日 丙午; 『正祖實錄』51券, 正祖 23年 5月 22日 己卯; 『高宗實錄』1券, 高宗 1年 9月15日 甲子.

24) 『成宗實錄』9券, 成宗 2年 3月 18日 辛卯; 『正祖實錄』51券, 正祖 23年, 5月 22日 己卯.

25) 『光海君日記』7券, 光海 卽位年 8月 20日 甲戌.

26) 『燕山君日記』58券, 燕山 11年 7月 24日 丁未.

27) 『成宗實錄』95券, 成宗 9年 8月 13日 壬寅.

반건전복(半乾全鮑),²⁸⁾ 염전복(鹽全鮑, 소금에 절인 것),²⁹⁾ 그리고 건복단인(乾鮑短引), 소금을 넣은 정도에 따라 무염생복(無鹽生鮑), 반염전복(半鹽全鮑)³⁰⁾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가공과정을 거친 전복 진상품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즉, 납작하게 펴서 말린 전복인 인복(引腹)³¹⁾과 인포(引鮑),³²⁾ 그것을 가늘게 하여 제사 등에 쓰인 세인복(細引鮑),³³⁾ 두드려 미끈하게 말린 추포(追鮑),³⁴⁾ 추복(追鮑),³⁵⁾ 가늘게 썰고 나서 말린 조포(條鮑),³⁶⁾ 조복(條鮑)³⁷⁾ 등이다. 그리고 껍질이 달려있는 채 싱싱하게 한 유갑전복(有匣全鮑),³⁸⁾ 회전복(灰全鮑),³⁹⁾ 모양이 큰 원전복(圓全鮑)⁴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전복어젓,⁴¹⁾ 전복껍데기⁴²⁾가 진상되는 전복에 관련된 명칭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전복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게 불리어진 것을 보면 전복 등 해산물을 귀천 없이 가난한 백성이 먹었다는⁴³⁾ 고려시대에 비하여 조선시대에는 왕궁에서 사용되고 상류사회에서나 먹는 귀한 물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이용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진상품 전복의 명칭을 나타낸 것이다.

28) 『純祖實錄』2券, 純祖1年 1月 28日 乙巳.
 29) 『正祖實錄』31券, 正祖14年 10月 14日 辛酉.
 30) 『輿地圖書』進貢條.
 31) 『成宗實錄』49券, 成宗 5年 11月 28日 乙卯; 『正祖實錄』26券, 正祖 12年 9月 30日 戊子; 『耽羅志』 貢獻條.
 32) 『世宗實錄』11券, 世宗 3年 1月 13日 丙子.
 33) 『成宗實錄』47券, 成宗 5年 9月 11日 癸亥.
 34) 『世宗實錄地理志』 土產條 濟州牧.
 35) 『燕山君日記』35券, 燕山 5年 11月 8日 甲子; 『正祖實錄』26券, 正祖 12年 9月 30日 戊子; 『耽羅志』 貢獻條.
 36) 『世宗實錄』11券, 世宗 3年 1月 13日 丙子.
 37) 『耽羅志』 貢獻條.
 38) 『純祖實錄』2券, 純祖 1年 1月 28日 乙巳.
 39) 『肅宗實錄』57券, 肅宗 42年 5月 10日 己巳; 『耽羅志』旌義縣 貢獻條.
 40) 『成宗實錄』49券, 成宗 5年 11月 28日 乙卯.
 41) 『成宗實錄』158券, 成宗 14年 9月 20日 庚戌.
 42) 『世宗實錄地理志』 江原道 杆城郡 土貢條.
 43) 『高麗圖經』第23券, 雜俗 2 漁條, 「細民 多食海品 故有鱶 鮑 蚌 珠母 蝦王 文蛤 紫蟹 蠣房 龜脚 以至海藻 昆布 貴賤通嗜 多勝食氣」.

<표 1> 진상품 전복의 명칭

구분	명칭	설명	비고(근거자료)	
일반명	복	전복	『순종실록』	
	포	鮑, 전복	조선 전반	
	복어	鮑魚, 전복	『문종실록』	
신선도(新鮮度)	생복, 생포	싱싱한 것	『성종실록』	
	전복	말린 전복	조선 전반	
가공 상태	말리기	건전복	말린 것	『성종실록』
		반건전복	반쯤 말린것	『순조실록』
	소금처리	무염생복	소금무처리	조선전반
		반염전복	절반처리	『여지도서』
		염전복	소금에 절임	『정조실록』
	피고 썰기	인복,인포	납작하기 펴기	『정조실록』
		세인복	펴서 가늘게 썬 것	『성종실록』
	두드려 펴기	추포,추복	두드려 말린 것	『세종실록지리지』
		조복,조포	가늘게 썬것	『세종실록』
	젓담그기	전복어젓	젓갈로 만든 것	『성종실록』
겉질 유무	유갑전복	겉질 떼지 않은 것	『순조실록』	
크기, 모양, 종류별	대전복	큰 것	『광해군일기』	
	왜전복	작고 맛있는 것	『연산군일기』	
	회전복	미상	『숙종실록』	
	원전복	크고 둥근전복	『성종실록』	

2. 전복의 생산지역

조선시대 전복의 생산지역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경기도, 평안도에는 없었다. 조선전기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에는 황해도에도 전복이 토산, 토공의 물품에 해당되지 않았다. 음식과 제사용으로 전복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 되었으며 전복의 생산 지역은 확대되었고 그 진상량도 증가하여 진상을 위한 전복의 조달은 구체화되었다.

조선시대 전국의 전복 생산지역을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편찬 당시의 조선의 전복 산지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제주도 포함), 강원도, 함길도에만 있었다.

다른 도(道)와 달리 함길도는 전복 생산지역 다섯 곳이 모두 전복을 토공(土貢)이 아닌 토산(土産)조에 기재되어 있다. 함길도의 함흥부를 예로 들어보면 토공품으로 표범가죽, 삿괭이가죽, 여우가죽, 홍화(紅花), 지초(芝草), 밀(黃蠟), 소유(酥油) 등 일곱 개 품목인 반면, 전복은 족제비털(黃毛), 대구(大口魚), 연어(年魚), 고등어, 미역과 함께 토산조에 실려 있는 것이다.

함길도 특산(特産)인 것들을 제외하고 당시에는 진상하지 않았던 것이다. 함길도나 평안도는 변방수비의 부담과 자급자족의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정세가 험했을 때는 진상을 적게 하였던 것이며 국경과 접한 곳이라 사신접대 등의 폐단도 있으니 함길도에서는 진상을 폐하라는 기록도 있다.⁴⁴⁾ 먼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확인되는 전복 생산지역을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표 2>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전복 생산 지역

구분	지역		종류	토산	토공
충청도	홍주목	태안군	생복	○	
경상도	경주부	울산군	전복		○
		홍해군	전복		○
		동래현	생복		○
		기장현	전복		○
		장기현	전복		○
		영일현	전복		○
		청하현	전복		○
	안동도호부	영덕현	전복		○
	진주목	고성현	생복		○
		거제현	생복		○
사천현		생복		○	

44) 『世宗實錄』59卷, 世宗 15年 2月 26日 庚戌, 「命承政院曰 咸吉道有使臣支持之弊 故命除進上 今進上如舊爾等何不啓之 遂內傳于咸吉道監司曰 進上諸物 自今頓除」.

전라도		하동현	생북	○		
		진해현	생북		○	
	나주목	해진군	전북		○	
		영암군	전북		○	
		강진현	전북		○	
	장흥도호부	순천도호부	전북		○	
	제주지역	제주목	전북, 인북, 추북, 조북		○	
		제주목	정의현	추북, 조북, 전북		○
			대정현	전북		○
	강원도	강릉도호부	양양도호부	전북		○
삼척도호부		평해군	전북		○	
		울진현	전북		○	
간성군		고성군	전북, 전북깍데기		○	
		통천군	전북, 전북깍데기		○	
		흡곡현	전북, 전북깍데기		○	
함길도		함흥부	북청도호부	전북	○	
	영흥도호부	예원군	전북, 생북	○		
	안변도호부	안변도호부	전북	○		
	길주목	길주목	전북	○		
		단천군	전북	○		

조선 당시에 도 갯벌로 된 해안에는 전북의 생산이 적었던 것 같다. 전라도 해안보다 경상도에 전북 산지가 많고 충청도에는 태안군이 유일하게 산지로 되어있다.

조선시대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시기인 1530년에 와서는 전북의 생산 지역으로 황해도가 추가되었다. 나아가 각도의 전북 생산 지역의 수는 증가하였다. 반면에 전북은 토산조에 실려 있을 뿐, 『동국여지승람』 편찬 항목 자체에 진공(進貢), 혹은 토공(土貢)항목이 없었다. 곧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하여 행정 등 다른 항목은 자세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토산(土産)조와 창고(倉庫)조로 소략화되었던 것이다.⁴⁵⁾ 또 『세종실록지리지』와 달리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전북,

45) 서인원, 『조선초기 지리지 연구』, 2000, 도서출판 해안, 182쪽.

생복 등의 구분 없이 복(鰯)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전복의 생산 지역을 나타낸 것이 <표 3>이다.

<표 3>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의 전복 생산 지역

구분	전복 생산 지역(토산)	
충청도	홍주목, 서산군, 면천군, 남포현, 결성현, 보령현,	
경상도	울산군, 동래현, 청하현, 영일현, 장기현, 기장현, 영해도호부, 영덕현, 진주목, 곤양군, 남해현, 사천현, 하동현, 김해도호부, 거제현, 고성현, 진해현, 웅천현	
전라도	전라지역	나주목, 영암군, 장흥도호부, 진도군, 강진현, 해남현, 순천도호부, 광양현, 홍양현
	제주지역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황해도	장련현, 웅진현, 강령현, 장연현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삼척도호부, 양양도호부, 평해군, 간성군, 고성군, 통천군, 울진현, 흡곡현	
함경도	함흥부, 영흥대도호부, 정평도호부, 안변도호부, 북청도호부, 단천군, 이성현, 홍원현, 길성현, 명천현, 부령도호부	

* 전라도 제주지역, 경상도의 울산부, 하동부, 홍해군은 物産아닌 土産조로 表記.

『여지도서』는 영조 33년(1757년)부터 영조 41년까지 전국의 읍지들을 모아서 편찬한 것으로 각 지역별 기술방법이 다양하고 곳에 따라서는 전복 진상량까지 적혀 있는 곳도 있다. 물산과 진공부분에 전복들이 각각 실렸으며 지방감영도 전복의 산지에 포함시켰다. 지방통치의 참고서 역할을 한 읍지의 편찬목적은 볼 때 중앙으로 거둬들이는 물품을 물량까지 기록해 놓는 것이 유용했기 때문이었다.

『여지도서』는 대동법(大同法)실시 이후 편찬되었으므로 이때의 공물이 결세화(結稅化)되어 대동세로 대체되어 지역에 따라서 공물이 사라진 시점이었다.⁴⁶⁾ 각 군현에서 감영 등으로 납부해야할 진상의 품목을 기록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여지도서』를 통해본 전국 전복의 산지는 다음 <표 4>와 같다.

46) 박주희, 「조선후기 경상도 해산 진상품 연구」,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2008, 15쪽

<표 4> 『여지도서』의 전복 생산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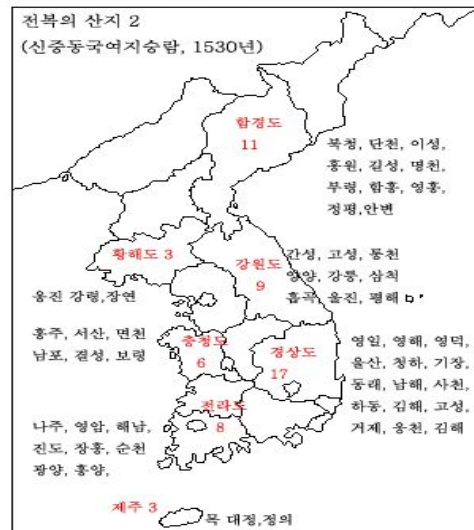
구분	지역	物産	進貢	
충청도	監營		유갑생복, 생복	
	홍주목	생복		
	서산군		생복, 유갑생복	
	태안(진관)	생복	생복, 유갑생복	
	남포현	복	생복	
	보령현		생복	
전라도	비인현	복	생복	
	영암군	복	전복, 생복	
	영광현		전복	
	광양현		전복, 생복, 건축복, 장인복	
	홍양현	전복	전복, 장인복, 생복	
	나주목	복	전복, 장인복	
	장흥부	복	전복, 생복, 건축복, 장인복	
	진도군	생복	전복, 생복, 건축복, 장인복	
	강진현		전복, 생복, 건축복, 장인복	
	해남현		전복, 생복, 건축복, 장인복	
	순천부		전복, 장인복, 생복	
	낙안군		전복, 장인복, 생복	
	보성군		전복, 장인복, 생복, 건축복	
	제주 지역	제주목	복	복, 추복, 인복
		정의현	복	
		대정현	복	
	경상도	統制營		생복, 숙복
		左兵營		생복, 숙복
경주부		복	생복, 대전복	
진주부		복	생복, 전복, 건복단인	
동래도호부		복	전복, 생복	
청하현		복		
연일현		복	대전복, 생복	
장기현		복	전복, 생복	
기장현		복	전복, 생복	
김해도호부		복	무염생복, 단인건복, 전복	
창원대도호부			전복, 건복단인	
거제부			단인복, 생복식염, 건복	
고성현		복	전복, 생복	
칠원현			전복, 건복단인	
웅천현		복	전복, 건복단인, 대전복, 소염전복	
남해현		복(鰓蛤표기)	생복	
울산부		복	생복, 인복, 전복	
하동부		복	전복	
홍해군		복		
사천현		복	전복, 건복단인	

지금까지 살펴본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의 분석을 통해 전북의 생산지역을 나타낸 것이 <표 2>, <표 3>, <표 4>이다. 이를 한 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에 표시한 것이 <그림 1>, <그림 2>, <그림 3>이다.

<그림 1> 『세종실록지리지』 전북 산지



<그림 2>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북 산지



<그림 3> 『여지도서』 전북 산지



이상의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에서 본 전국 전북산지의 변화를 비교하면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전북의 산지 지역별 비교표



시간이 지날수록 전북의 산지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여지도서』의 산지에는 감영(監營)같은 관청도 숫자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생산 자체보다 조달하여 공물로 채워지는 것에 점차 집중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Ⅲ. 전북 진상품 내역과 물량

1. 충청·경상·전라도의 전북 진상 내역

1) 충청도의 전북 진상 내역

조선 전기까지는 충청도의 경우 전북의 산지는 한 곳에 불과하였다. 홍주목 태안군이 그것이다. 그나마 토산조에 실려 있고 토공 항목에는 품목명이 없었다.⁴⁷⁾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에는 국가 소요의 어류를 충당하는 방식이 공물(供物)외에도 어전세(漁箭稅), 선세(船稅) 등 다양했기 때문에 이들 어류를 각 군현의 공물로 배정한 것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⁴⁸⁾ 하지만 후기에 와서는 진상의 기록들이 있을뿐더러 전북의 산지도 몇 군데로 늘어나고 있음은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다.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전북을 채취하기에는 그 앞에 가로 놓인 갯펄과 완만한 경사로 된 서해안에서는 채취가 매우 불리하였다. 그래서 먼 바다의 섬으로 가거나, 배를 타고 전북을 캐러 가야 했던 것이다.⁴⁹⁾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 잡는 배가 따로 배정되어 있었던 지역이 바로 호서 지방이다.⁵⁰⁾

충청도의 전북 진상의 중요한 역할은 생복 진상이었다. 그것도 껍질이 붙어 있는 채 진상하는 유갑생복(有匣生鮓)이었다. 매달 초하루에 바치는 삭선(朔膳)의 품목 중에서 충청도의 생복은 음식을 다루는 사옹원(司饗院)에서도 평이 매우 좋았다. 진상하는 껍질이 있는 생전복은 다른 곳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가

47) 『世宗實錄地理志』忠淸道 洪州牧 泰安郡, 「(土貢)篠簜 芝草 黃毛 狐皮 紙 魚膠 黃角 細毛 水魚 民魚 沙魚 洪魚 大蝦 藥材, 烏魚骨 防風 蟾酥 / (土產)海衣 海靑 落地 生鮑」.

48) 소순규, 「조선전기 지리지 물산항목의 편제방식과 공물수취의 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66쪽

49) 안면도의 백성들이 수영(水營)의 침징(侵徵)에 고생하고 있으며 소속된 섬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빙자(憑藉)하는 단서 중에서 진상하는 생복이 가장 심하다.

『正祖實錄』51券 正祖23年 5月9日 丙寅. 「向聞沈判府之言 安眠一島之民 困於水營之侵徵 以至所屬諸島 無不被其害 而憑藉之端 進上生鮓 尤甚云 年來供鮓 除滅何如 則敢於此條容奸乎 以供 鮓點退 昨年至有島民之被棍於裨屬而致斃者 其委折 廟堂嚴問該關 使之首實報司後草記 而今年 則該關 以鮓爲名者 雖一箇半箇 勿爲封進」.

50) 『萬機要覽』財用編3 海稅條. 「湖西 進上採鮓船」.

까운 곳이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에도 더욱 좋았던 것이다.⁵¹⁾ 이는 다른 물품에 있어서도 서울에서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서 전라지역보다 충청지역이 신선도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²⁾

대동법이 시행된 후에도 사주인에게 돈을 주어 생복만큼은 충청도에서 봉진해야 한다고 선혜청은 아뢰고 있다. 탄일(誕日)·동지(冬至)·정조(正朝)·납일(臘日)은 삭선(朔膳)에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생복은 당연히 공상해야 하는 물선(物膳)의 문제였던 것이다.⁵³⁾ <표 5>는 『여지도서』 충청도 진공조(進貢條)를 참조하여 작성한 충청도의 전복 진상 내역이다.

<표 5> 18세기 충청도의 전복 진상내역(자료 : 『여지도서』)

구분	진상 종류	품목	물량
監營	正月朔	유갑생복	대전300개(箇) / 중궁전 200개 세자궁 200개 / 세손궁 200개
	9月朔	생복	대전5斗 / 중궁전5斗 세자궁5斗 / 세손궁5斗
	誕日	생복식염(生鰓食鹽)	대전5斗
	冬至	생복식염	대전5斗
태안진관	正月朔	유갑생복	369(介)
	9月朔	생복	6斗
	誕日	생복	1斗 2升
	冬至	생복	1斗 2升 5合
보령현	9月令	생복	1斗 9升
	誕日	생복	2升2合
	冬至	생복	2斗
	正朝	생복	60개

51) 『正租實錄』32券, 正租15年 6月26日 己巳. 「湖西朔膳 皆自京廳代封 而獨陳賀物膳 自本道封進 教曰 陳賀是何等盛事 而以物膳事 貽弊吾民 甚非同慶之意 詢于廟堂 備邊司啓言 詳閱廚院貢膳定例 則所餘名色朔膳條 正月有有匣生鰓 四月有黃石首魚 八月有早紅柿子 生松茸 九月有早紅柿子 生鰓 物膳條 誕日與冬至 俱有生鰓矣 生鰓 早紅 不特爲土產 輸上之際 道里最近 況本道生鰓 以甲於諸道 最有雋稱 早紅 松茸 亦如之 非京肆所可求得 此三種 依前舉行」.

52) 동시에 진상한 마늘이 충청도의 것은 새로 캔 것 같았고, 전라도의 것은 썩어 나무라는 일도 있었다. 『燕山君日記』52券 燕山10年 4月12日 癸卯. 「下全羅道監司金永貞封進芽蒜曰 忠淸道所進 則葉長而若新採 然今全羅道所進 僅生芽 又腐破 不合供上」.

53) 『孝宗實錄』10券, 孝宗 4年 2月12日 己酉. 「宣惠廳啓曰 忠淸道朔膳變通之舉 今已講定 各種價米二千一百七十七石 而所減者七百一石 第念 誕日 冬至 正朝 臘日 非如朔膳之比 亦不以應供之物封進 揆以事體 殊極未安 此則給價於私主人 各於節日 依例封進 實合情禮 至於臘猪 新稻 生鰓 红柿若干種 直令本道封進」.

비인현	正月朔	유갑생복	36개
	誕日	생복	5升6合
	10月朔	생복	5升
	冬至	생복	6升6合

한편, 조선 후기 충청도의 수영에서는 약방의 별복정(別卜定)으로 찬물에 쓰이는 유갑생복은 봄가을에 8회, 매년 100箇씩 봉진(封進)하였고 다례(茶禮)에 쓰이는 것으로 정조(正朝)에 100箇씩 봉진하였다.⁵⁴⁾

2) 경상도의 전복 진상 내역

경상도는 조선전기(『세종실록지리지』) 당시에 도 전복의 산지가 조선 안에서 가장 많았는데, 조선후기(『여지도서』)에 또한 생산 지역이 증가하여 통제영(統制營)과 좌병영(左兵營)을 포함하여 21곳이나 된다. 그 중에는 창원, 거제부, 칠원현처럼 물산조(物産條)에는 기록되지 않고 진공조(進貢條)에만 전복류들이 기록된 곳도 있다.

경상도는 조선초부터 월선(月膳)을 바치고 있었다. 육로로 서울까지 먼 길이어서 역마가 지쳐 경상도에서는 월선을 금하라는 기록도 있었다.⁵⁵⁾ 경상도의 진상물을 육로로 진상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었지만 원로(遠路)였다. 당시 영덕, 영일 등의 전복은 안동이나 상주의 도회소를 경유했고, 경상도 남해안의 전복들은 진주나 밀양의 도회소를 거쳐 진상되었다.⁵⁶⁾ 진주, 밀양의 진상품은 바닷길을 통해 서해로 운반될 수도 있었다.⁵⁷⁾ 경상 감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다른 곳의 지방관처럼 방물 진상에 있었으니 동지(冬至)진상을 위해 감사부임을 서둘러 내려 보내기도 하였

54) 『純祖實錄』2券 純祖 1年 1月28日 乙巳. 「藥房別卜定饋物所用 有匣生鰓 黃海 忠淸兩水營春秋各八次 每次一百箇 半乾全鰓統營 左兵營春秋各七次 每次一貼 白細鰓 醢 黃海監 兵營春秋各三次 每次二斗 甘冬醢 黃海監營春秋各三次 每次三斗 鰓卵 平安監營春秋各一次六斗 生鰓 熟鰓 每月十四日 統營 左兵營輪回封進 六月 七月 十一月 十二月停封 皮荻栗 秋平安監營 慶尙監營各八次 每次五斗 茶禮所用有匣生鰓 正朝黃海 忠淸兩水營各一百箇」.

55) 『太宗實錄』28券, 太宗 14年 9月 14日 甲申. 「命各道水軍都節制使勿進月膳 全羅 慶尙兩道監司 兵馬水軍兩節制使, 皆進月膳, 驛馬羸困, 故有是命」.

56) 『文宗實錄』10券, 文宗1年 11月 25日 己未. 「三道體察使鄭茶請 慶尙道進上物膳 上道則安東 尙州 下道則 晉州 密陽 定四都會 分收供進」.

57) 조운은 조선 초기 태조 때도 있었으며 전라도를 거쳐 충청도 서해안으로 북상하는 바닷길은 전란(戰亂)시에 유용하였다. 『太祖實錄』7券, 太祖 4年 5月 17日 己酉. 「慶尙道漕船十六艘 至安興梁 遇風沒水」.

다.⁵⁸⁾

조선후기 18세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시(場市)도 경상도가 제일 많았는데, 전복을 사고 파는 곳이 영남에만 15곳이나 되며, 거제같은 바닷가 마을도 있었지만 청송이나 경산같은 내륙에도 있었음은 특기할 사항이다.⁵⁹⁾ 진상할 전복이 아예 나지 않는 곳이나 잡는다 하더라도 크기가 작은 것처럼 품질이 미치지 못할 때는 사서 진상량을 채워야 했던 것이다. 진상하는 건전복이 경상도 울산의 것이 작아서 사천, 거제에서 매번 사들이는 데 그것도 제주도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⁶⁰⁾

이 시기 전복의 진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는 경상도 전감사 이의강의 보고(報告)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생전복을 더 많이 혹은 미리 채취하는 폐단을 일체 혁파하겠습니다. 전복을 딸 때에 데리고 가는 하인들과 권농 수작자들의 숫자를 줄이고 포구를 떠나는 기간도 열흘이나 보름으로 정할 것이며, 일을 돕는 일꾼도 혁파하겠습니다. 동남쪽의 여덟 포구에 대해서는 연호(煙戶) 잡역을 줄이고, 물속에 들어가는 일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돌아가면서 그 비용을 담당하게 하여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돈의 이자를 불리는 조항 및 원래 진상하는 공물 값으로 내는 쌀을 마련한 뒤에 해마다 몇대로 거두는 5백여 냥은 모두 영원히 감면하겠습니다. 기장(機張)에 넘어가 따는 일도 일체 금지하겠습니다. 합하여 봉진하는 것의 편리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전복과 삶은 전복을 한꺼번에 봉진하는 것은 삭선(朔膳)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반쯤 말린 전복은 봄·가을로 각각 일곱 번을 바치는데, 봄에는 원래 일정한 날짜가 없어서 관문(關文)이 오면 봉진하며 가을에는 으레 9월에 첫 번째 봉진을 하고, 그 나머지 여섯 번은 달마다 봉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폐단을 지금 이미 모두 혁파하였으며 보면, 합하여 봉진을 하든 나누어 봉진을 하든 바닷가 백성들에게는 이로울 것도 해로울 것도 별로 없으니, 이전대로 봉진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합니다.’⁶¹⁾

58) 『中宗實錄』64券, 中宗 23年 閏10月 13日 辛巳. 「冬至箋及方物狀 不可以守令爲之也其箋文及方物 必在慶尙道初面 新監司 李芑 若催促下送 則可」

59) 이영학, 「조선후기 어물의 유통」, 『한국문화』27권, 2001, 230~241쪽.

60) 『正祖實錄』37券 正祖 17年 5月 27日 戊午. 「進供乾鮑 以蔚產之體小 每貿於泗川 巨濟等地 此是濟州所產之轉貿者也 高峻之元價 去來之雜費」.

이에 의하면, 전복 진상에 여러 가지 폐단이 야기되고 있었는데, 생전복을 미리 채취하거나 다량 채취하는 폐단, 전복 채취시에 딸린 하인이나 일꾼에게 음식 제공 금지 및 혁파, 진상 공물값 감면, 기장 지역으로 넘어가 전복 채취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표 6>은 『여지도서』 경상도 진공조(進貢條)를 참조하여 작성한 경상도의 전복 진상 내역이다.

<표 6> 18세기 경상도의 전복 진상내역(자료 : 『여지도서』)

구분	진상 종류	진상물량
감영(監營)	朔膳 2月	무염생복 250개, 생복 413개
	5月	전복30貼, 건복단인 35貼
	6月	전복 18貼
통영(統營)	9月	소염생복
	11月	무염생복 300개
	12月	무염생복 450개
좌병영(左兵營)	동절(冬節)	생복 200개, 숙복(熟鮑) 150개
	별(別)진상	반건전복, 내의원(內醫院)에 진상
	간삭(間朔)	생복150개, 숙복 150개, 반건전복

무염(無鹽)생복이라고 하면 소금에 절이지 않는 그대로의 생복이었다. 그것은 얼음의 사용이 확대된 것을 뜻하기도 한다. <표 6>에서 숙복, 곧 삶은 전복도 진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얼음에 채워 수송하는 것이었다.⁶²⁾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민간 장빙업이 성행하면서 어물도 염어와 건어뿐만 아니라 어름을 채워서 생선의 형태로 유통되는 현상이 증가한 것이다.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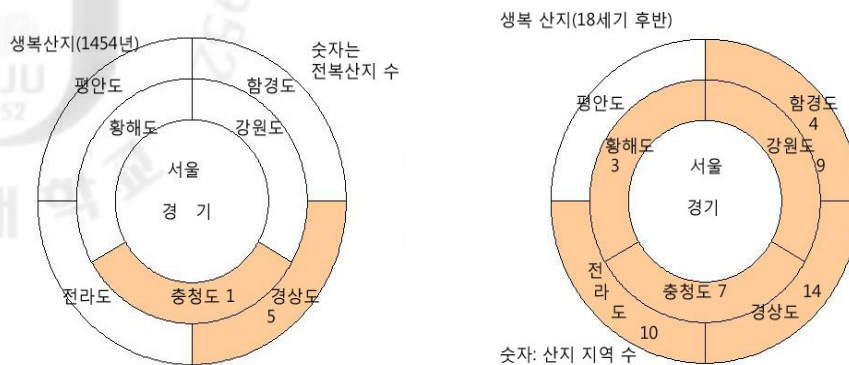
한편, 생복의 산지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생복의 산지를 그림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61) 『正祖實錄』51券 正祖 23年 5月 22日 己卯. 「生鮑加採預採之弊 一切革罷採鮑時帶去卒隸及勸農首作者除減出浦之其 定以一句或一望 助役軍亦爲革罷 東南八浦 減期烟戶雜役 沈水軍供饋 輪回擔當 其費以除弊 錢利條及元進上價米磨鍊後 每年橫斂之五百餘兩 盡數永減 機張越採 一體禁斷而至於合封便否 生熟鮑之間 一朝封進 係是朔膳 不可變改 半乾鮑則春秋各封七等 而春等則元無定日 故待關文封進 秋等則例於九月初等封進 其餘六等 逐月封進 而諸般弊端 今既盡革 則合封分封 別無損益於海民 依前封進 實合便宜 而但春等依秋等九月封進例 以三月內定日封進 則諸弊可祛.」

62) 『憲宗實錄 附錄 憲宗大王實錄』, 「浦民海採之艱 實關人命 而暑月冰輸 尤爲痼弊 自今六七兩朔生熟鮑封進於藥院者 並永爲停減.」

63) 이영학, 「조선 후기 어물의 유통」, 『한국문화』27권, 서울대학교, 2001, 213~214쪽.

<그림 5> 생복 생산 지역의 변화(15→18세기 후반)



<그림 5>에서 색칠한 부분이 생복산지가 포함된 도(道)이다. 왼쪽 부분은 『세종실록지리지』를 참조하여 작성한 그림이고, 오른쪽은 『여지도서』를 참조하였다. 동심원구조로 그려진 것은 진상물의 수송거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산지의 수에서 진상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왼쪽 그림을 보면 함경도의 한 곳 예원군에 생복이 생산된다고 했지만, 토공 물품이 아니며 진상 기록이 없어 황해도처럼 산지가 없는 곳으로 표현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복의 산지는 확대되어 수송거리가 먼 곳으로 고르게 분포된 것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유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3) 전라도의 전복 진상 내역

전라도는 조선 전기부터 전복을 진상하는 산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주산지는 나주목(羅州牧)의 해진군(海珍郡), 영암부(靈巖郡), 강진현과 순천도호부였다.

16세기에 전복의 산지는 15세기에 비하여 약간 늘어나고 있다. 즉, 나주목, 영암군, 장흥도호부, 진도군, 해남현, 순천도호부, 광양현, 홍양현이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낙안군(樂安郡), 보성군(寶城郡)이 전복 산지로 추가되고 있으며, 전라도의 전복산지 대부분은 남해안에 있는 지역들이었다. 조선 개국 30년 후 세종 때에 이미 경상, 전라의 양남(兩南)에서는 생복을 진상하는 기록이 확인된다.⁶⁴⁾

64) 『世宗實錄』11券 世宗 3年 1月13日 丙子. 「禮曹啓 進上物目內 於慶尙 全羅二道錄紅柿 而不錄乾柿 錄引鮑, 而不錄生鮑」.

15세기 후반 전라도 어민들은 해물을 채취해서 팔았는데 사사로이 채취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을 금하고자 인복(引鰻), 원전복(圓全鰻)에 소용되는 큰 전복을 채취하고자 먼 외딴섬에 갈 때는 만호(萬戶)를 감시인으로 동반하도록 하였다.⁶⁵⁾ 그곳은 전라도 광양, 낙안, 순천지역으로 큰 전복으로 만든 세인복(細引鰻)은 제사에 쓰이는 천신(薦新)용 진상품이었다.⁶⁶⁾

남해안 지역인 순천지역은 오래 전부터 전복산지였다. 전라도에서는 조선후기에 들어서도 꾸준히 전복을 진상하고 있으니, 이를 세밀하게 들여다 보기위해 순천지방의 읍지(邑誌)들을 참고하여 전복 진상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순천지역 읍지 중에 이수광이 1618년 편찬한 『승평지』(昇平志)가 있으며, 1729년에는 홍중정이 편찬한 『신증승평지』가 있으며,⁶⁷⁾ 『순천속지』는 1881년 김윤식이 편찬하였다. 조선 전기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는 없었던 생복 진상이 『여지도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邑誌들에도 모두 생복 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과 전라도간 교통길이 편해진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얼음의 사용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생복의 유통과 신선도 보전에는 얼음이 유용하였다.⁶⁸⁾ 그리고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 당시 순천지방에 있었던 얼음 저장고이다.⁶⁹⁾

<표 7> 순천 지역의 전복 진상 내역⁷⁰⁾

구분	昇平志(1618년)	新增昇平志(1729년)	順天續志(1881년)	
正朝	全鰻 3貼 生鰻 90箇	全鰻 1貼6串 生鰻 60箇	全鰻 1貼8串6箇	世子宮 全鰻 3串7箇
端午				
冬至	全鰻 3貼 生鰻 60箇 引鰻 17注之	全鰻 1貼5串 引鰻 4注之	全鰻 1貼7串3箇	世子宮 全鰻 3串4箇
誕日	長引鰻 15注之 全鰻 3貼	長引鰻 11注之 全鰻 4貼	大妃殿 誕日(3月) 全鰻 3串2箇	

65) 『成宗實錄』49券 成宗 5年 11月 28日 己卯. 「戶曹據全羅道觀察使啓本啓 沿海居民專以 海 貿易資生 故雖 鑷貢物 禁民私採爲難 非徒全羅道 諸道濱海官所貢引鰻圓全鰻可造者 須採於深遠絕島 若嚴禁則無處可得 今後大鰻採取之時 令各道觀察使 以其船隻經由各浦萬戶 差守護人 領率採取」.

66) 『成宗實錄』47券 成宗 5年 9月 11日 癸亥. 「光陽 樂安 順天等邑歲貢細引鰻 以境內無大鰻 深入絕島採之 猝遇釣魚倭 以強弱相勝負 官吏雖或得知 匿不以報, 邊釁常起於所忽 請嚴立禁防 使不得往採 且大鰻只產於 絕島 請減光陽等邑細引鰻之貢 且今所鞫水賊 安知其釣倭無文引者而誤認爲賊乎 要當得情以處之耳 上曰曰 此言果然 但細引鰻乃薦新之物 不可盡減」.

67) 승평이란 이름은 본래 신라 때부터 전해지던 순천의 지역명이다. 『世宗實錄地理志』全羅道 順天都護府, 「順天 都護府使一人 本百濟敵平郡 新羅改昇平郡」.

68) 이영학, 앞의 논문 참조.

69) 『順天續志』倉庫條, 水庫 在城南2里.

			大殿 誕日(7월) 全鯪 1貼6串6箇 長引鯪 2注之	世子宮 全鯪 3串3箇 長引鯪 7條
其他	監司 到界 全鯪 2貼			

<표 7>에서 정조, 동지, 탄일의 진상은 정기적인 것이며, 이를 삼명일(三名日)이라 하였으며 조선초부터 시행되었고 세자궁에도 방물이 추가 진상되었다.

<표 8> 순천지역 전복 진상 내역(세자궁)

구분	昇平志(1618年)	新增昇平志(1729年)	順天續志(1881年)	
正月朔	長引鯪 13注之	長引鯪 6注之 全鯪 1貼 1串 生鯪 70箇	全鯪 8串2箇	世子宮 全鯪1串6箇
2月朔	生鯪40箇	生鯪 50箇	生鯪 100箇	宗廟(薦新) 生鯪7箇 世子宮 誕日 全鯪 2串6箇 長引鯪 7條
3月朔	長引鯪 3注之	長引鯪 4注之 全鯪 1貼2串	全鯪8串2箇	世子宮 全鯪3串6箇
4月朔	乾圓鯪 3貼 長引鯪 23注之	長引鯪 5注之 全鯪 1貼1串	全鯪 7串	世子宮 全鯪1串5箇
5月朔	乾圓鯪 1貼 長引鯪 3注之	全鯪 1貼1串	全鯪 1貼	世子宮 全鯪2串
6月朔	乾圓鯪 2貼 長引鯪 3注之	全鯪 7串 長引鯪 2注之	全鯪 8串 長引鯪 2注之1條	世子宮 全鯪 1串4箇
7月朔		全鯪 7串 長引鯪 2注之		世子宮 全鯪 3串3箇
8月朔		長引鯪 2注之 全鯪 7串	全鯪 8串4箇	世子宮 全鯪 1串7箇
9月朔	長引鯪 23注之	長引鯪 5注之 全鯪 7串 乾熟鯪75箇		
10月朔	乾圓鯪 1貼 生鯪118箇	長引鯪 5注之 全鯪 7串 生鯪 50箇	全鯪 8串 4箇	世子宮 全鯪 1串7箇
11月朔	乾圓鯪 4貼 長引鯪 11注之	長引鯪 2注之 全鯪 7串	全鯪 8串 4箇	世子宮 全鯪 3串4箇
12月朔	乾圓鯪 1貼 長引鯪 3注之	全鯪 7串		世子宮 全鯪 1串7箇

70) 이 표는 『昇平志』(이수광, 1618), 『新增昇平志』(홍중징, 1729), 『順天續志』(김윤식, 1881)의 진상(進上)조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 함경·황해·강원도의 전복 진상 내역

1) 함경도의 전복 진상 내역

함경도는 조선 전기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에는 함길도(咸吉道)라고 불렀다. 당시에는 토공이 아닌 토산조에 실린 함흥부, 북청도호부, 예원군, 안변도호부, 길주목과 단천군이 전복의 산지로 나타난다. 당시에 생복의 산지라고 했던 곳은 예원군 한 곳 뿐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여지도서』 시기에는 생복의 산지가 지역에 따라서 생복을 진상하는 수량까지 실려 있다.

<표 9> 함경도의 전복 진상내역(자료 : 『與地圖書』)

구분	진상 종류	품목과 물량
감영(監營)	11月 朔膳	생복
길주목	正月 令	생복 110개
명천부	11月 朔	생복 220개
	12月 朔	생복 85개
북청부	11月 朔	생복
	冬至	생복
홍원현	冬至	생복
	正朝	생복

전복의 주산지인 제주도에서는 전복 진상이 10월 이후 겨울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함경도에는 11월에서 정월까지 동절기에만 생복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함경도의 전복이 남해안의 것들과 다른 품종이기 때문이다.⁷¹⁾ 경상도에서는 가을이 제철이 아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⁷²⁾

연산군 당시에 유자광은 함경도에서 생전복을 사사로이 채취하여 왕에게 바친 기록이 나온다. 생복은 귀하고 조선시대에는 뇌물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던 것이다.⁷³⁾

71) 전상린, 제종길외 감수, 『해양생물대백과』, 2005, 한국해양연구원, 7~9쪽. 우리나라 남해안에는 왕전복, 둥근전복, 말전복등이 있는데 겨울이 산란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동해안 이북과 일본의 동북지방에는 북방전복이 있어 제철은 겨울과 봄이며 여름에 산란한다.

72) 가을에 나는 광어와 생복과 석류 등은 제철이 아니므로 봉진하지 말라고 경상도 감사에게 지시하였다. 『明宗實錄』3券 明宗 1年 2月19日 丙午, 「慈殿傳于政院曰 秋廣魚 生鰓 石榴等物 皆非時產 勿令封進 而今爲連進不已 民弊不貲 此意速諭于慶尙監司」.

2) 황해도 및 강원도의 전복 진상 내역

황해도는 조선 전기에는 전복 산지에 해당이 안되다가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때 와서 장련현, 웅진현, 강진현, 장연현에 전복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여지도서』에서는 수영(水營)에서 내의원(內醫院)에 생복을 별진상 하고 있었다. 실제 수영(水營)에서 전술한 약용(藥用) 생복을 봄·가을에 8회 100개 씩 봉진하고, 다례(茶禮)용 유갑생복을 정조(正朝)때 100개 씩 진상하였다.⁷⁴⁾

『여지도서』에서 진상시기로서는 10월에만 물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황해도 감영에서 10월에 생복 1,320개(箇)를 진공하였다. 또한 해주진관 소속 강령현에서 10월에 생복 315개, 웅진도호부에서 10월에 생복 560개를 진상했다. 『공선정례』에서도 황해도의 전복 진상에 대해서는 10월에만 생복을 진상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강원도는 선초부터 전복을 진상하였는데 동해안을 따라 형성된 강릉, 양양, 삼척, 간성, 고성, 통천, 흡곡 외에도 오늘날 경북에 해당되는 평해, 울진(각각 삼척도호부 소속)이 전복 생산 지역이었다. 『여지도서』의 시기에 와서는 위의 언급된 전복의 진공지역은 강원감영과 회양이 추가되었을 뿐 비슷했다. 그런데 『여지도서』에서 이런 전복의 산지는 전부 생복을 진상하는 장소로 바뀌었다. 16세기 중반에 강원도에서는 생복 등 생물을 진상할 때는 한강이라는 수로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상하지 않도록 얼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⁷⁵⁾

73) 유자광(柳子光)의 사진(私進)에 대한 탄핵 기사가 연산군일기에 5회나 나오는데, 해당 물건이 생복이었다.

『燕山君日記』32券, 燕山5年 1月 13日 癸酉. 「正言尹殷輔啓 子光私獻生鮑 石花 不可不罪 且錄事非三公 則雖政府堂上 不得帶行 子光 敢帶行 請鞫之 仍上劄論之 不聽」.

74) 『純祖實錄』2券 純祖1年 1月 28日 乙巳. 「藥房別卜定饋物所用 有匣生鮑 黃海 忠淸兩水營春秋各八次 每次一百箇 (중략) 茶禮所用有匣生鮑 正朝黃海 忠淸兩水營各一百箇」.

75) 『中宗實錄』87券 中宗 33年 6月 21日 壬戌. 「江原道監司蔡世傑 移文于禮曹曰 道進上生物 到江輸入時 車馬夫等 濫受價物 至於陪持人衣服 亦爲奪取 其弊不小 云 禮曹依所報 令漢城府輸入事 爲公事入啓矣 予意以爲 慶尙道則不然 今江原道進上 獨令輸入 一開其端 他道必援此爲之 亦不無其弊矣 況車馬夫 如田稅材瓦藏水輸入之事頗多」.

3. 제주지역의 전복 진상 내역

조선시대 제주도에 공납제가 실시된 것은 태종 8년, 곧 1408년이다.⁷⁶⁾ 조선 전기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그저 북, 전복이라고 되어 있는 다른 도와 달리 전복을 말리고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세분되어 토공조에 실리고 있다. 그것은 전복, 인복, 추복, 조복 등이 바로 그것이다. 바다를 건너는 해로를 포함하는 진상 수송로가 길어서 생복으로 진상할 수 없는 반면 말린 전복을 대량으로 중앙에 바쳤던 것이다.

실제로 중앙정부가 필요한 많은 수량의 전복을 제주도에서 담당하고 있었다.⁷⁷⁾ 전복(추복)이 제주도에서 진상되어 그것을 각 도에 나누어 말리어 다시 바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⁷⁸⁾

전복은 제주도의 것이 가장 컸다고 허균은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고도 하고 있다.⁷⁹⁾ 제주도의 전복들은 중국에까지 바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성종때 한치형이 가지고 가는 별진헌(別進獻) 품목에는 조선에서 준비한 선물 속에는 건전복 500묵음이 포함되고 있었다. 이것은 중국 황제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⁸⁰⁾ 같은 시기 다른 별진헌 물목에도 건전복 400묵음이 포함되어 있으니 제주도의 전복에 대한 많은 수요(需要)를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전복의 수량은 함께 가지고 가는 마른 오징어나 광어에 비해 몇 배의 수량이었다.⁸¹⁾ 중국은 왕조가 바뀌어도 전복을 선호하였는지 그곳의 관리들에게 주는 선물에도 포함되고 있다. 18세기 말 연행록의 기록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다.⁸²⁾

76) 『太宗實錄』卷 26 太宗 13年 11月 辛巳; 서인원, 『조선초기 지리지연구』, 2002, 해안, 185쪽, 재인용.

77) 박주희, 「조선시대 경상도 해산 진상품 연구」, 2008, 부경대학교, 34쪽.

78) 『燕山君日記』35卷 燕山 5年 11月 18日 甲子. 「分送濟州槌鰓于各道 諭觀察使曰 依樣曝乾以進」.

79) 『성소부부고(惺所覆韻藁)』26卷 設部 2. 「海水族之類 大鰓魚 產濟州者最大 味不及小者 而華人極貴之」.

80) 『成宗實錄』95卷 成宗 9年 8月 13日 壬寅. 「韓致亨 齎去別進獻 (중략) 乾全鰓魚五百束 乾烏賊魚三十斤 乾廣魚五百尾 乾秀魚三百尾 昆布四百斤 塔土麻三百斤 海衣一百斤 海菜耳一百斤 石菌一百斤 因皇帝之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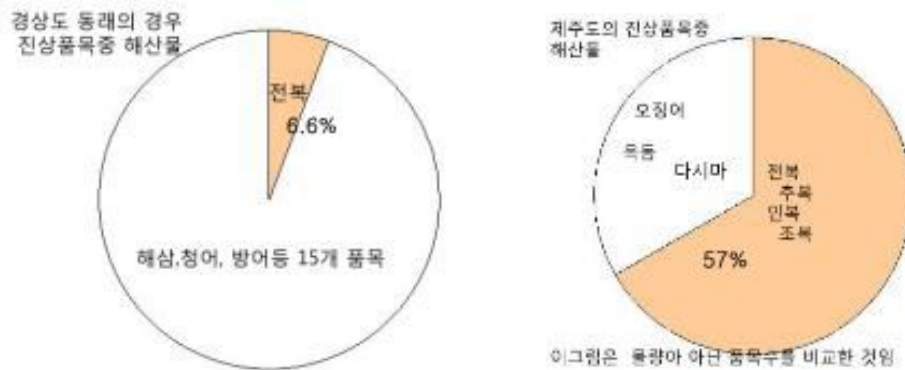
81) 『成宗實錄』120卷 成宗11年 8月 19日 丙寅. 「遣同知中樞府事韓僖 奉表如京師 賀聖節 上 率百官 拜表如儀 其齎去別進獻物目 (中略) 乾全鰓魚四百束 乾烏賊魚一千六百尾 乾廣魚四百尾」.

82) 제독 1인, 통차관 6인, 차통관 6인에게 각각 전복 1첩씩을 선물한다. 『燕行錄』, 「入彼地 給禮單式, 北京所管提督一人 壯二十束, 白四十束, 匣草百封, 大匣草五封, 青皮七丈, 玳瑁粧刀一柄, 銀長竹一介, 環刀月乃各一部, 全卜一貼, 文魚一尾, 鈿竹五介, 銀項竹五介, 長竹三介, 扇子二十柄, 大口五尾, 海參一斗 大通官六人 各壯十五束, 白三十束, 匣草百封, 大匣草五封, 青皮七丈, 玳瑁粧刀一柄, 銀長竹一介, 環刀一部, 文魚一尾, 全卜一貼, 鈿竹銀項竹各五介, 大口魚五尾, 長竹三介, 扇子二十柄, 海參一斗 次通官六人 各壯十束, 白二十束, 匣草五十封, 大匣草三封, 錫粧刀一柄, 銀項竹, 長竹各三介, 大口魚三尾, 青銀粧刀一柄, 銀小竹一介, 全卜一貼, 海參一斗, 鈿竹五介, 青皮一丈, 刀子五柄, 扇子十五柄」.

제사에 사용되는 인복(引鰻)은 당초 큰 전복으로 만든 것이며 큰 전복은 깊은 곳에 있게 마련이다.⁸³⁾ 바다 깊은 곳의 전복은 높은 나무의 열매처럼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제주도의 진상 물량에서 인복의 숫자가 추복에 비해 적은 이유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전국의 전복 진상 내역을 살펴보았는데, 전국의 읍지를 모아 편찬한 『여지도서』의 경우 진상 물량이 적힌 지역도 있지만, 진상하는 품목명만 기록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여러 문헌에서 진상물량이 자세히 적혀 있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것은 전복을 진상하는 각 지역의 공물 중에서 전복이 차지하는 중요도 및 물량의 비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6>은 전복의 진상 품목 중 가중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6> 경상도 및 제주 지역 해산물 진상과 전복 품목



진상물 중 전복의 중요도 관계는 조선전기의 지리지인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마찬가지로인 바,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고른 경상도 동래의 공물 품목 중에서 해산물 부분만 보더라도 16개 품목으로 생복은 그 중의 하나인⁸⁴⁾ 반면에 제주도인 경우 해산물은 오징어, 다시마 그리고 옥돔과 함께 전복 4종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⁸⁵⁾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전복 진상이 중요하였다. 곧 제주도는 전복을 전문적으

83) 『成宗實錄』49券 成宗 15年 11月 28日 己卯. 「諸道濱海官所貢引鰻圓全鰻可造者 須採於深遠絕島 若嚴禁則無處可得 今後大鰻採取之時 令各道觀察使」.

84) 『世宗實錄地理志』慶尙道 東來縣 土貢條. 「土貢 篠簜 紙 芝草 蕪膏 橘 石榴 榧子 吾海曹藿 牛毛 細毛 海衣 早藿 靑角 海蔘 乾蛤 生鮑 沙魚 大口魚 靑魚 魴魚 魚膠 狐皮 狸皮 獐皮 鹿皮 占察皮 魚皮 藥材 防風 天門冬 麥門冬 鹿茸 烏魚骨 厚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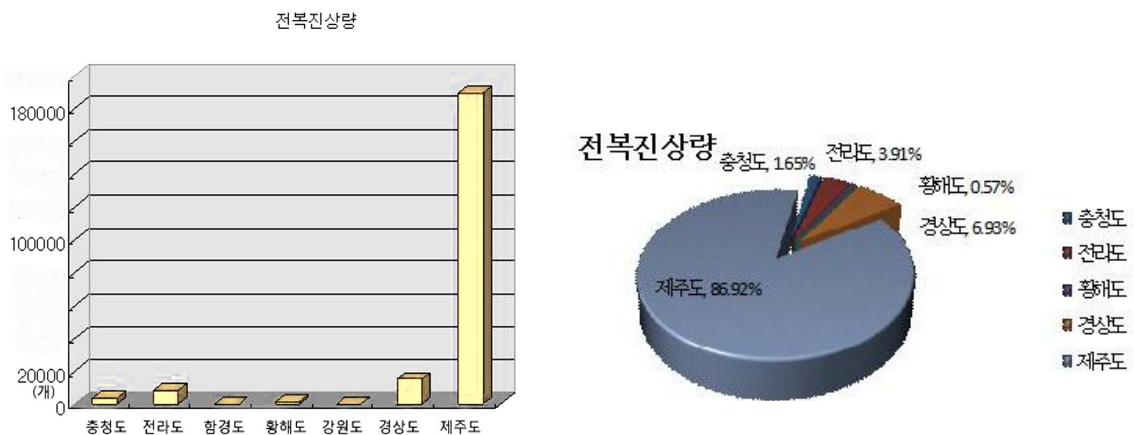
로 진상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전복 조달의 주역은 제주도가 담당했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전복 진상물량을 동시적(同時的)으로 비교하는 것이 요긴하다. <표 10>과 <그림 7>은 18세기 후반 전국의 전복 진상물량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0> 18세기(『공선정례』, 1776년) 각도별 전복진상물량

구분	수량(단위:개)	백분율(%)
충청도	3,600	1.652
전라도	8,520	3.911
함경도	0	0.000
황해도	1,250	0.573
강원도	0	0.000
경상도	15,100	6.932
제주지역	189,340	86.928
계	217,810	100

※ 각 도별 진상액수와 진상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할 것.

<그림 7> 18세기(1776년) 전복진상량 비교



※ 참고 : 1첩(집)은 100개, 1주지(줄기)는 10개로 계산함.

85) 『世宗實錄地理志』 濟州牧 土貢條. 「土貢 玳瑁 蕪膏 牛毛 榧子 柑子 柚子 乳柑 洞庭橘 金橘 青橘 山橘 全鮑 引鮑 槌鮑 條鮑 烏賊魚 玉頭魚 昆布 山柚子木 二年木 榧子木 良馬」

『공선정례(貢膳定例)』는 정조 원년(1776년)에 편찬된 것으로 전국의 공선 진상품의 물품과 수량까지 기록되어 있다. 각도의 물선 삭선과 탄일의 물선 방물 물선의 물량은 『공선정례』에 실려 있는 대로 조선말까지도 지켜 거둬들이고 있었다.⁸⁶⁾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전복 진상 물량 합계의 86.9%나 조달하여야 했다. 『공선정례』의 물량은 중앙관부에 적혀 있는 목표량이니 제주도 현지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전복을 잡아내고 말리고 바쳐야 했던 것이 현실이다. 전복을 잡는 잠녀역(潛女役)은 관아에서 작성한 잠녀안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진상용 외에도 채취물의 일부를 관아용으로 바쳐야 했던 것이다. 진상용 추복과 어복 관아용까지 조달을 담당할 포작은 진상액의 많음과 관리들의 빙공여사(憑公營私)의 과중한 부담에 허덕이고 있었다.⁸⁷⁾ 또한 전복 진상품은 중간 과정에서 관리들의 농간으로 많은 수량이 새고 있었다. 사용원의 문서를 보면 진상은 24운(運)이고 각 1운마다 4, 5통(通)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사람들의 경우에는 1운마다 20통을 보낸다고 하였다. 이것은 필시 진상이외의 사사로이 보내는 수량이 틀림없을 것이다.⁸⁸⁾

조선시대 전라도의 일부였던 제주 지역이 전복진상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제주 지역이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전복 물량을 조달하고 있었고, 전라도·경상도 등의 진상품 등도 제주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전복진상 관련 내용은 대부분 제주도의 사례가 기록되었다. 제주도의 전복 잡는 전문가들이 전라도, 경상도 등으로 진출하였다.⁸⁹⁾ 제주에서 서울까지의 진상은 제주 목사가 책임지고 담당했다. 즉 진상제도상 제주는 전라도에서 독립되어 있었던 것이다.⁹⁰⁾

86) 『承政院日記』高宗 12年 1月 7日 庚午.

87) 권인혁·김동전, 『조선후기 제주지역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19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996, 188쪽.

88) 『光海君日記』10券, 卽位年 11月 3日 丙戌. 「但取見司饗院文籍 則進上二十四運 而一運每四五桶 問于濟州人 則一運每二十桶云 此必進上外私送之數 濫觴至此 以致進上亦將闕封 事極可駭」.

89) 이미 15세기에 출륙 포작인들이 전라도, 경상도에 산거하였다.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의 사회적 지위와 직역변동』,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0쪽.

90) 長林美信, 『조선후기 제주진상물 조달 수송』, 『탐라문화』23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03, 147쪽.

IV. 진상 전복의 조달과 채취

1. 진상 전복의 조달

조선 초기부터 제주도에서는 전복을 말리고 가공하는 방법이 다양하였다. 세종조에 원복·인복·조복, 그리고 추복을 이미 진상하고 있었다.⁹¹⁾ 제주도에 부임한 지방관의 주요 관심은 공물 조달, 징수 및 진상이었고 그 물품 중에서 전복은 중요하였다. 부임한 지방관들은 진상 전복 조달에 대해 다음 3가지 중 하나의 태도를 취하였다.

하나는 전복 조달에 신경을 쓰되 그 작업의 어려움을 장계(狀啓) 등을 통해 중앙에 보고하고 진상물량을 줄이려 애를 쓴다. 그 한 예로 숙종 때의 장계내용을 보면,

‘제주 3읍은 가난하고 역은 다른 곳의 두 배나 된다. 그것을 감당하려 처자나 동생까지 팔고 있는데 팔린 자가 58인이나 된다. 배를 부리는 격군의 아내는 잡녀로서 부부의 역이 30필이나 된다. 이들이 전복, 오징어, 미역을 채취하는 역할을 하는데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몇 년 지탱하기 힘들다.’⁹²⁾

라 하였다. 전복 진상을 위해 처자나 동생을 팔아 넘기기도 하고, 진상 물량이 많아 삶을 지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숙종은 제주별건어사의 장계를 보고 진상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⁹³⁾

다른 하나는 진상물 조달을 빙자하여 개인의 사욕까지 채우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복 채취 및 상납을 강요하였다. 이런 현상은 조선후기에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진상을 면하라는 왕명을 가로채어 사익을 취한 제주목사도 있었다.

91) 『世宗實錄』11券, 世宗 3年 1月13日 丙子. 「濟州之柑子 柚子 洞庭橘 乳柑 青橘 薰蒿 榧子 早藿 圓鮑 引鮑 條鮑 槌鮑 烏賊魚等物 亦將趁節供進」.

92) 『肅宗實錄』37券, 肅宗 28年 7月12日 辛酉. 「濟州守臣狀言 本島三邑 貧殘無依 役倍他處 甚至賣父母鬻妻子 雇當身賣同生之境 賣鬻者都合爲五十八名 請以常平廳公會付耗穀, 參酌劃給 以爲贖還之地 又言 所謂漁戶兼行船格妻 稱潛女 一年納官者 浦作不下二十疋 潛女亦至七八疋 一家內夫婦所納 幾至三十餘疋 而槌鮑各種烏賊魚 粉藿等役 皆自此出營 本官將士支供及公私酬應 又在此數之外 若不別樣變通 此類之得支數」.

93) 『肅宗實錄』57券, 肅宗 42年 5月10日 己巳. 「濟州別遣御史黃龜河狀言 灰全鮫連年封進之難 上命特爲姑減 仍命本島進上物種 並減三分之二」.

‘우연히 그런가 아닌가 논할 것 없이 굶어죽은 사람이 그다지도 많다는 내용을 보고는 내심 깜짝 놀랐으며, 더욱이 잘못된 관례의 유무를 따질 것 없이 굶주린 백성을 먹인 숫자를 허위로 기록하는 일을 차마 할 수가 있는가. 더구나 섬의 백성들을 위하여 폐단을 제거하는 조항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왕위에 오른 최초로 공물(貢物)을 면제하는 일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전복을 영원히 면제하는 것이었다. 그때의 하교가 과연 어떠하였는가. 그런데 그가 감히 서울에서 요구하는 데 쓸 것이라고 핑계하고는 강제로 큰 것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내 구멍이 뚫리지 않은 전복까지도 요구하여, 이 호소할 데 없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니, 어찌 극히 밋지 않겠는가. 이 밖의 잡다한 범죄는 오히려 작은 일에 속한다.’⁹⁴⁾

그보다 앞선 시기에 제주에 유배된 이건은 이런 참상을 보고 『제주풍토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潛女 描寫 前略) 생활의 어렵고 고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더욱이 염치없는 관리가 탐오지심(貪汚之心)이 생기면 명목을 교묘하게 만들어 징색하기를 수없이 함으로 1년간 조업해도 그 역을 당하기에 부족하다.’⁹⁵⁾

라 하여, 지방관리들이 사사로이 징수하는 폐단이 심하여 잡녀들은 진상액을 마련하느라 1년 내내 물질을 하여도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관들이 취하는 태도 중의 하나는 전복을 채취하는 일의 고됨을 목격하고 동정한다. 조선전기 세종때 제주목사 기건은 백성들이 전복을 조달하는데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제주목사로 부임해 있는 동안 전복을 먹지 않아 제주도민들로부터 칭백리로 칭송되기도 하였다.⁹⁶⁾

조선시대에 전복을 조달하기위하여 그것을 채취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하루

94) 『正祖實錄』39券, 正祖 18年 3月 2日 己丑. 「無論邂逅與否 捐瘠之夥然 看來驚心又無論謬例有無 賑口之虛錄 是可忍乎 且況爲島民除弊條件中最是頒令者 卽御極初鑄貢事也 其中絕大全鰓之永除 其時下教果何如 而渠敢托以用於京中求請 不但勒徵大品 乃求無穴之鰓 致此無告之籲天無從者 寧不痛惡 外此雜犯 猶屬餘事」.

95) 李健, 『濟州風土記』, 1629年. 「生理之艱苦已不足言而 若有不廉之官 吞生貪汚之心則巧作名目 徵索無等一年所業不足」.

96) 『世祖實錄』22券. 世祖 ?年 12月29日 辛丑. 「中樞院使奇虔卒 虔 奇顯之後 性清簡貞苦(中略) 又按撫濟州民病所貢鰓魚 亦三年不食鰓」.

종일 일해서 전복 한, 두개를 잡을 뿐이라는 기록도 있다.⁹⁷⁾ 전복채취의 어려운 사정을 들은 정승이 동정하는 문서도 있다. ‘포작하는 집안은 가련하다. 한겨울에 전복을 캐고 추운 때에 미역을 베느라고 남자나 여자가 발가벗고 바다 속에 들어가 (추워서)떨며 물결에 떠밀려 죽지 않은 것 만해도 다행이다.’ 는 조선 후기 우의정 심상규의 상소문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⁹⁸⁾

진상물을 준비하는 과정은 전복을 잡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다. 목표 물량을 채워야 했고, 그것이 변질하지 않도록 말리고 가공하여야 했다. 그것이 규정된 징수량보다 많아져 일반 민호에도 부과하였으니 제주섬의 물력이 소진될 정도였다.⁹⁹⁾

잡은 전복을 얇게 두드리며 눌러 펴며 말린 추복과 인복, 조복 이런 것 모두 말리는 것들이니 건조과정 동안 유실의 방지와 칼질, 기타의 마무리 모두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습기가 많고 비오는 날이 많은 제주도 해안가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다. 준비된 진상품은 지정한 기일에 제주 관아에서 수량을 확인받아 공납하였다.

이렇게 바치는 제주도 전복의 자세한 물량은 조선후기의 여러 기록에 남아 있다. 먼저『탐라지』에 기록된 전복 진상 월령의 물량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17세기 중반 제주 지역 진상 전복 내역

월령	진상내용
1월	
2월	추복(追鮑) 265貼, 인복(引鮑) 95束, 조복(條鮑)265束
3월	추복 240貼, 인복85束
4월	추복 760貼, 인복 170束
5월	추복 760貼 인복170束
6월	추복 1,108貼 인복170束
7월	추복 680貼 인복 170束
8월	추복 1,108貼 인복170束
9월	추복425貼,인복85束
10월	
11월	
12월	

※ 자료 :『탐라지(耽羅志)』 1653년 공헌(貢獻)조

97) 光海君日記』7券, 卽位年 8月 20日 甲戌. 「竊念鮑魚捉出, 最爲艱苦, 終日入海, 僅得一二箇 燿」.

98) 『純祖實錄』27券, 純祖 25年 11月19日 壬寅. 「浦作之戶 尤爲可憐 隆冬採鮑 盛寒刈藿 男婦赤裸 泗入海底, 戰兢波吒 不死誠幸」.

99) 『南僉錄』9月22日 丙申. 「及守令封送之數 不在此限 一島物力 胎盡此矣」.

<표 11>에 의하면, 인복의 경우 월령에 따라 정해진 진상량은 일정하다. 그것은 일정하게 잡아낸다는 얘기가 된다. 반면에 추복의 경우 일손이 되는 한 전복을 채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2월경에는 수온이 낮고 날씨가 추워 작업량이 떨어지는 것이며 9월에는 전복이 산란기에 접어드는 듯하다. 같은 여름이라도 장마철을 끼고 태풍이 잦은 7월에는 6월이나 9월에 비해 60%정도로 감소되는 것은 자연환경과 기상이 관련된 것이라 판단된다. 월령과 별도로 정의현과 대정현에는 각각 포작인 13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사재감(司宰監)에 전복을 진상하고 있었다.『탐라지』에 기록된 그 물량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17세기 중반 정의현·대정현 전복 진상 내역(단위:貼)

지역	용도	대회복(大灰鰓)	중회복	소회복
정의현	사재감 공물	1,128	714	747
대정현	사재감 공물	582	331	150

『탐라지』보다 50년 앞선 김상헌의 『남사록(南僿錄)』에 기록된 전복의 진상물량은 탐라지보다 다소 적은 량이지만 그 자체는 막대한 물량이었다.¹⁰⁰⁾ 이것들은 3읍의 포작인을 통해 거둬들이는 것으로 수령에게 봉송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 물량은 3읍의 포작인을 통해 거둬들이는 것으로 수령에게 봉송하는 물량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¹⁰¹⁾

이후에도 사찬(私纂) 지방지마다 전복의 진상물량은 게재되었다. 1703년 『남환박물』, 1793년 『제주 대정 정의읍지』, 1824년 『탐라사례』, 1854년 『탐영사례』 등이 그것이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3>이다.¹⁰²⁾

100) 『남사록』의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별진상	추복 3,030첩, 조복 250첩, 인복 910첩
사재감에 바치는 것	대회전복 500첩, 중회전복 945첩, 소회전복 8,330첩
별공감(別貢監)	대회전복 1000첩, 중회전복 700첩
대정현	대회전복 500첩, 중회전복 230첩
정의현	대회전복 500첩, 중회전복 195첩

101) 金尙憲, 『南僿錄』, 1602. 「此皆取辯於三邑浦作而其他海菜及守令封送之數不在此限一島物力殆盡於此矣」.

102)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변동」,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7쪽.

<표 13> 조선후기 제주지역 진상 전복 내역(단위:貼)

자료 및 년도	남사록	탐라지	남환박물	읍지	탐라사례	탐영사례
1601	1601	1653	1703	1793	1824	1854
추복	3,030	4,918	3,900	1,423	1,347	1,630
조복	230	265	260	113	107	131
인복	910	1,115	1,100	354	377	377

추복의 진상물량은 17세기 중반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18세기 초에 들어서서 20% 감소한다. 18세기 말에 들어서서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조복의 진상물량 역시 18세기말에 줄어들었으며 인복 또한 삼분의 일의 물량으로 진상물량은 감소하고 있다.

어떻든 18세기 말에 이르러 현저하게 전복 진상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포작인들이 과중한 역을 벗어나기 위한 피역을 도모하였다.¹⁰³⁾ 그 결과 전복 조달 전문인 숫자가 급감하였다. 둘째, 평역고(平役庫), 보민고(補民庫) 등의 사례도 있거니와 지방관아의 재정으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있었다. 현종 9년(1843년)에 포작인이 부담한 진상은 예리처(禮吏處)가 대행하기도 하였다.¹⁰⁴⁾ 셋째, 국왕이 고역을 헤아려 감면하는 사례도 있었다.¹⁰⁵⁾ 넷째, 남획의 결과 큰 전복들은 보다 깊은 곳으로 가야 잡을 수 있었다. 조선 말기에 들어서서 이전만큼의 대량 전복채취는 근대적인 방식이 요구되었다.¹⁰⁶⁾

103) 김나영, 앞의 논문, 29쪽.

104) 값을 충분하게 주라는 왕명이 있었다. 즉, ‘(정조 명하기를)해산(海産)의 이익은 양대(涼臺)와 달라서 봄날씨가 따뜻해진 후에도 전복과 미역 등숙이 많이 채취되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도신 및 연읍의 수령에게 엄히 신칙하여 자기의 일처럼 여기고 마음을 써서 권면하게 하라. 인하여 제주목으로 하여금 민간에 효유하여 값을 넉넉하게 주고 무역하게 한다면 풍문을 듣고 몰려들어 반드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正祖實錄』 44卷, 正祖 20年 1月 3日 庚戌. 「而大抵海利 異於涼臺 春和後鰾藿之屬 安知不多採 嚴飭道臣及沿邑守令 看作已事 着意勸之 仍令耽羅牧 曉諭民間 優直質遷 則聞風而集」.

105) ‘(정조)가 가로되 제주(濟州)에서 회복(灰鰾)을 진상하는 문제는 전복을 잡는 자의 폐해가 아주 심하다. 이와 같은 진상은 그다지 긴급하지 않으니, 영구히 제감(除減)하는 것이 좋겠다하니 (홍)국영은 만약 이 폐해를 제거한다면 제주의 전복을 잡는 백성이 지탱하여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日省錄』, 正祖 2年 5月 29日 戊子. 「予曰喬桐水使所請取耗事果何如國榮曰此自前已行之事矣予 曰濟州灰鰾進上浦漢之爲弊滋甚此等進上無甚關緊永爲除減好矣國榮曰若除此弊則濟州浦民可以支保 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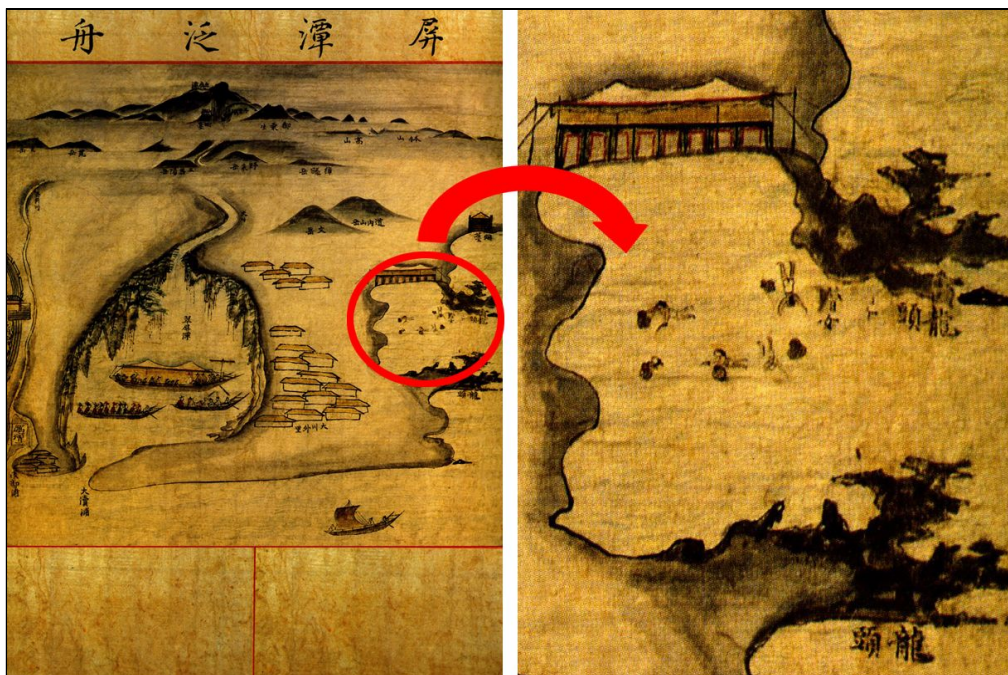
106) 제주 목사 심현택의 장계(狀啓) ‘일본 선박 3척이 어업(漁業)을 하기 위해 장비를 가지고 정의현 포구에 당도하였습니다. 본도(本島)는 망망한 바다 한쪽에 외따로 있어 수십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고기잡이와 수산물 채취에 의지하고 있는데, 미역과 전복 채취 같은 것은 모두 여자들이 하는 일인 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리지어 뒤섞이려 하지 않을 것이니, 형세 상 앞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高宗實錄』 21卷, 高宗 21年 7月 18日 庚申. 「濟州牧使沈賢澤狀啓 則日本船三隻 以漁業次 持 器械 來到於旌義縣浦口矣 本島僻在滄溟 數十萬生靈 專資漁採 至於藿鰾 皆是女業 不欲與異國人 逐隊淆雜 勢將離散乃

2. 전복 채취 방법과 도구

조선시대에 전복을 채취하는 방법은 오늘날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해녀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을 치며 잠수하여 손으로 잡아내는 것이다. 물위를 헤엄치다가 잠수하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의 모습이 조선시대 『탐라순력도』의 한 장면에 그려져 있다.¹⁰⁷⁾

<그림 8> 『탐라순력도』의 「병담범주」



오늘날 제주시 용두암(龍頭巖)근처의 바다이다. 해안가에 천막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관에서 시켜 해녀들에게 전복을 잡고 있는 광경이다. 해녀 다섯 명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한사람은 물속에 들어간 모습이어서 희미하게 그려져 있고 수면위에 태와과 망사리(잡은 것들을 보관하는 그물주머니)만 떠있다. 해녀들이 그 당 시에도 흰색의 수중작업복을 입고 있었다.¹⁰⁸⁾

已.

107) 『耽羅巡歷圖』屏潭泛舟, 1703.

108) 김정숙, 「제주도 해녀복연구」, 이화여대, 1989, 85쪽.

이 그림에 대한 설명도 될 수 있는 내용이 100여 년이 지난 이원조의 『탐라록』에 기록되어 있다. ‘용두암은 머리의 뿔 모양이 용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언덕 옆 평평한 곳에 천막을 쳤다. 가는풀, 푸른가시 햇볕에 따스하고 곱다. 아침조수 빠져나가나 파도는 없다. 대소관탈섬(大小火脫島)이 마치 머리상투와 주먹모양 같으며 어선들은 점점이 오간다. 잠녀들을 손짓해 오라하니 수십인이 해삼과 전복을 바친다. 점심의 음식도 오기 전에 그것들이 쌓이고 가득 찼다. 쌀과 콩을 나누어 주니 모두 기뻐 돌아가다.¹⁰⁹⁾

『임원십육지』전어지(佃漁志) 조적조(釣籍條)에 나오는 채복법(採鮑法)은 오늘날의 해녀가 하는 방법과 거의 대동소이하다.¹¹⁰⁾ 하지만 오늘날의 해녀 작업에 비해서 결정적인 차이는 수경(水鏡)의 미착용(未着用)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다의 차가운 수온을 감내해야했던 것은 현대까지 지속된 것이다.¹¹¹⁾ 1900년 이전까지는 불편한 정도의 물안경도 없었던 것이다.¹¹²⁾

염분이 있는 바닷물에 눈이 따갑고 작업이 불편한 것도 그렇지만 밀도가 틀린 바닷물을 통해 생눈으로 물건을 보는 것은 지장이 있었으니 발견하는 것과 수심에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잠녀들은 물속으로 들어가 전복을 딸 때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한참 만에 나오는 것이다.¹¹³⁾

『탐라순력도』 편찬자 이형상은 장계(狀啓)를 통하여 남자는 채취하지 않으며 전복채취의 책임이 여자(潛女)에게 있었으며 포작의 수가 많은 때는 300여 명이었으나, 88명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추복 3,900첩, 조복 260첩, 인복 1,100첩, 회전복 3,860첩 도합 9,100첩을 그들이 조달하고 있으며 괴로운 역(役)이라고 서술하고 있다.¹¹⁴⁾

109) 李源祚, 『耽羅錄』, 閏3月 24日, 1843. 「頭角宛然如龍故名 設帳於岡頭平行處 細草青茨風日暄妍 早朝方退 波濤不 興望見大小火脫島如髻如拳漁船點點往來 招潛女數十人採納蓼鮑 各逞技能須更堆積滿前饋以午飯 分給米豆皆燻悅而去」.

110) 박구병, 「어염업의 발달」(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3 : 조선후기의 경제』), 탐구당, 2003, 227쪽.

111) 조선 후기와 비슷한 옷차림인 물소중이는 1970년대까지도 제주도 해녀들은 입었다. 오늘날은 고무 잠수옷을 입지만 신체에 물이 들어가는 습식잠수복이며 겨울에서 늦봄까지의 저수온기에는 춥다. 추운 것이 상대적으로 덜할 뿐이다.

112) 안미정,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한양대, 2007, 47쪽.

113) 『星湖僊說』人事文.

114) 『瓶窩先生文集』17券, 狀, 濟州民瘼狀 1702.

「各道漁戶 只應水役 若干進上 又有給價之時 而本島則皆兼他役 島中風俗 男不採鮑 只責於潛女 女人官役 對答者 惟獨本州爲然 況大靜旌義兩官 則牧子羣頭 皆以女保定給 卽此推之 境界可想夫以 鮑作兼行船格等 許多苦役 妻以潛女 備納一年內進上藿鮑 其爲苦役 十倍於牧子 槩以一年通計 則鮑 作所納之價 不下二十疋

여자들만 전복을 채취한 것은 조선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후기에 와서는 여자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 된 것은 확실하였다. 전라 감사(監司)와 제주목사는 고종때 장계에서 제주섬은 바다의 한쪽 끝에 있는데 수십의 백성이 어업, 채취업에만 의존하는데 미역이나 전복을 따는 일은 모두 여자의 일이라 기록하고 있다.¹¹⁵⁾

여자(潛女)들이 전복을 캐는 일은 많은 사료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범위에서는, 그것은 제주도에서만 있었던 일이며 전복을 캐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 하면 조선시대 제주도는 변방의 차별에다 남녀의 차별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차별이나 고역(苦役)을 이기고 의무를 다하고 적극적 자세로 여성들이 바다에서 일을 해왔던 풍습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행하여지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복 잡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중반의「잠녀가」를 보면, ‘제주도 여자들을 열 살 때 수영을 배운다. 갈구리, 채룽, 박(태왁)을 가지고 벌거벗은 채 간단한 옷만 차고 깊은 바다에 뛰어든다. 물오리처럼 물속을 드나든다. 무서운 물속에서 팔도에 봉진하고 서울로 올려 보내려 하루에 몇 짐이나 생복, 건복을 건져 내야 한다.’와 같이, 제주도 잠녀의 신고(辛苦)를 표현하고 있다.¹¹⁶⁾

해녀들은 조선 시대에도 옷을 입고 전복을 채취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구는 태왁과 망사리이다. 아래의 사진은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4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潛女所納 亦至七八疋 一家內夫婦所納 幾至三十餘疋 則浦民之抵死謀避 勢 所固然 中年以上鮑作元數 多至三百餘名 或囚或杖 猶可責應 今則只是八十八名 而在喪雜頃 又在於 此中 其所實役 尤極零星 搥鮑三千九百餘貼 條鮑二百六十餘貼 引鮑一千一百餘貼 灰全鮑三千八百 六十餘貼 都合九千一百餘貼.

115) 『瓶窩先生文集』17券, 狀, 濟州民瘼狀 1702.

116) 申光洙, 『石北先生文集』, 7券, 詩, 耽羅錄, 潛女歌, 1763

「耽羅女兒能善泅 十歲已學前溪游 土俗婚姻重潛女 父母誇無衣食憂 我是北人聞不信 奉使今來南海遊 城東二月風日暄 家家兒女出水頭 一鍬一笊一匏子 赤身小袴何曾羞 直下不疑深青水 紛紛風葉空中投 北人駭然南人笑 擊水相戲橫乘流 忽學梟雛沒無處 但見匏子輕輕水上浮 斯須湧出碧波中 急引匏繩以腹留 一時長嘯吐氣息 其聲悲動水宮幽 人生爲業何須此 爾獨貪利絕輕死 豈不聞陸可農蠶山可採 世間極險無如水 能者深入近百尺 往往又遭飢蛟食 自從均役罷日供 官吏雖云與錢覓 八道進奉走京師 一日幾駭生乾鮑 金玉達官庖綺羅公子席 豈知辛苦所從來 纔經一嚼案已推 潛女潛女爾雖樂吾自哀 奈何戲人性命累吾口腹 嗟吾書生 州青魚亦難喫 但得朝夕一口足」.

<그림 9> 태왁과 망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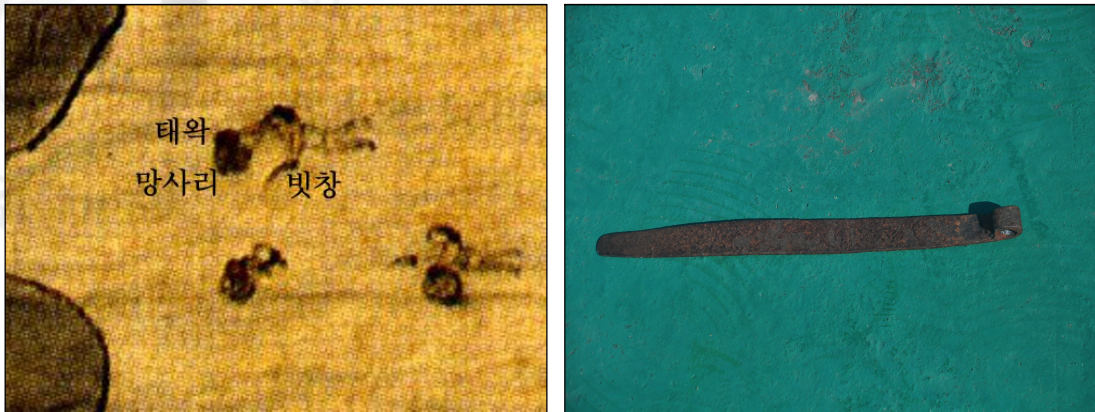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왁에 이중삼중으로 다이아몬드형으로 묶고 있다. 일부가 끊어져도 전체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태왁의 둘레는 90cm이고, 망사리를 엮는 둥그런 모양의 나무의 지름은 60cm이다.

초가집위에 심었던 박을 따서 만든 태왁은 부력이 강하였다. 채취한 전복등 해산물을 넣는 그물주머니인 망사리를 물위에 띄워줄 뿐 아니라 장시간 물속에서 작업하는 해녀가 잡고 잠시 쉴 수도 있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조선시대의 앞의 그림 『탐라순력도』에도 표현되어 있다.

망사리는 들에 있는 덩굴로 만들었고 둥그런 테는 에음이라고 하는데 다래나무, 보리장나무 또는 삼동나무같은 덩굴성 나무의 줄기를 이용했다. 사진의 것은 삼동나무로 만든 것이다. 당시의 그물주머니인 망사리도 야초(野草)나 덩굴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전복채취구로는 빗창이 있다. 앞의 그림에도 수면위의 해녀들은 왼손에 빗창을 들고 있는 것이 표현되어 있다. (오른손에 빗창을 든 해녀도 있는데 왼손잡이일수도 있겠지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왼손으로 태왁을 잡고 있으니 오른손에 바꿔 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10> 비창을 들고 있는 잠녀 모습과 빗창



이 빗창은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길이는 27cm이다. 가에 눈(구멍)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손목에 매었을 것이다. 놓치면 깊은 바다에서 회수가 안될 뿐더러 양손을 사용하기 편했기 때문이다.

전복은 바위에 달라붙는 힘이 강하여 간조때 물밖에 드러난 것도 맨손으로 떼 수 없다. 손목에 걸고 전복을 서툴게 떼다가 전복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위험할 때도 있다고 한다. 전복 속으로 집어넣고 지렛대처럼 위 아래로 들썩이면 안된다. 전복에 흠집이 날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안간힘을 다해 바위에 붙어 버린다. 그저 가에 대어 손잡이 쪽을 위로 하여 옆으로 밀듯이 젓히는 것이 전복 채취의 요령이다. 당시 변방이었고, 섬인 제주도에서는 쇠붙이가 귀하었는데 손에 빗창을 쥐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전복 채취가 진상용품 조달이니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철제 빗창이 제공되었던 것이다. 당시 문헌에도 철제꼬챙이(철침, 鐵尖)을 가지고 전복채취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젓가슴에 태왁(匏)을 대고 망사리는 태왁에 묶는다. 전복껍질을 주머니에 넣고 빗창(鐵尖)을 잡아 여기저기 헤엄치다가 마음이 들면 물속으로 잠수한다. 바닥에 닿아서 한손으로 바위를 더듬어보면 전복을 알게 된다. 전복은 바위위에 옆드려 붙어 있어 쉽게 떼 수 없고 색깔도 돌처럼 검어 혼동하게 된다. 전복껍테기를 그곳에 놓아 빛을 발해(반사하여) 알 수 있게 표시해둔다. 숨이 급해지면 바로 올라와 태왁을 안고 숨을 쉬는데 (참았던) 그 소리가 휘이하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 수 없다.’¹¹⁷⁾

18세기초반 『북헌거사집』의 내용 중 일부분이다. 태왁에 의지하여 빗창으로 전복을 캐는 모습이 매우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 그 외 미역 등 채취도구로 정계호미, 골갱이(호미) 등이 있으나 전복과 관계없는 것이니 생략한다.

117) 金春澤, 『北軒居士集』13券, 囚海錄, 說, 潛女說, 1710

有所謂潛女者業潛水採藿或採鰾(中略)吾赤吾身着匏於胸以繩囊繫於匏以舊所採者鰾之甲盛于囊 手持鐵尖以游以泳 遂以潛焉 及乎水底 以一手撫其厓石 知其有鰾 而鰾之黏於石者 堅而以甲伏焉 堅故不可即採 伏故其色黑 與石混 乃以舊甲 仰而置之 以識其處 爲其裏面光明 在水中可察見也 於是吾氣甚急 卽出而抱其匏以息之 其聲劃然久者 不知凡幾

V. 진상 전복의 용도

1. 진상 경로와 담당 각사(各司)

지방관아에서 바쳐진 진상물들은 배에 실려져 서울로 보내지게 된다. 선운(船運)이 육운(陸運)보다 우선되는 조선시대 수송의 개념은 『임원경제지』에 나타나 있는데, 말은 수레보다, 수레는 배보다 못하다는 것이다.¹¹⁸⁾ 배를 통해 운반 하는 것은 많은 량을 수송할 수 있고 시간도 덜 걸렸다. 강원도 남부에서 평해로를 따라서 서울에 갈 때는 8~9일이나 걸렸으나 그보다 쉬운 길은 한강이었다. 강을 따라 하류로 오는 뱃길은 바다에 비해 쉬웠을 것이다.

한편 경상도에서도 남해안을 따라서 서진하여 전라도를 거치는 조운이 시기에 따라서는 있어왔지만, 위험이 덜한 육지에서의 운송이 일반적이었다. 제주도는 섬이어서 바다를 건널 때 배를 사용하여 실어 나를뿐더러 그 배가 서울까지 가는 것도 혼한 일이었다.

조선 전기 세종 때 기록을 보면 공물을 실어 나르는 배에는 영선천호(領船千戶) 한 사람, 두목(頭目) 한 사람, 사관(射官)이 네 명이 승선하였고 격군(格軍)으로 큰 배는 43명, 작은 배는 34명이나 동승하였다. 바닷길로 진상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인지라 다섯 번, 무사하게 경강(京江)에 도착하면 표창하여 승진시켰다.¹¹⁹⁾ 배가 제주에서 전라도에 도착하여 운번으로 임무를 보던 강진, 영암, 해남의 도회관을 거쳐 확인한 뒤에 해로를 거슬러 운반되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제주목사의 책임이니 진상제도상 제주도는 독립적인 입장이었던 것이다.

때로는 풍량이 물품은 물론 사람들까지 수장시켰다. 서해안의 충청도 태안, 안홍량은 지나가는 배에게 위험한 곳이어서 자주 해난 사고가 일어났다.¹²⁰⁾ 진상 길의

118) 이영학, 「조선후기어물의 유통」, 『한국문화』27,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1, 226쪽.

119) 『世宗實錄』29卷, 世宗7年 7月 15日 壬午. 「濟州貢船每年三隻來往每一隻領船千戶一押領千戶一頭目一射官四格軍大船四十三名中船三十七名小船三十四名 寄命水上涉海往還亦可論功請貢船五次無事到京江 其射官各因前職 海領授職」.

120) 『世祖實錄』2卷, 世祖1年 9月 10日 壬午. 「全羅道漕船五十四艘 本月三日過泰安安興梁 遭風或全船敗沒 或不知所向, 予甚軫慮 計於遠島極浦 雖有依岸得活者 無食必至餓死 其令諸邑 具船與糧 窮搜救活 又令沿海人家 遇有下陸求食者 隨至供饋」.

제주배가 약탈되는 사고도 있었다.¹²¹⁾ 같은 시기에 전복 등 제주 진상품은 전라도부터에서는 육로로도 진상되었다. 육로로 진상하는 길은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거치는 먼 길이었다. 이렇게 올린 전복은 해당 각사에서 대·중·소까지 분별하여 확인하였다.¹²²⁾ 이런 운반에는 사물까지 운송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역참이 번거로웠던 반면 역마다 찰방이 검문 하였다.¹²³⁾ 육로로 가면 썩는 것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시일이 더 걸렸던 것이다. 역로(驛路)의 각 읍에서 제때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배로 가는 길도 순풍이어야 한 달이나 걸렸지만 비용은 배가 훨씬 저렴하였다. 그래도 고종때 비용이 배 두척에 800냥이었다.¹²⁴⁾ 죽을 고생을 하며 진상을 하였지만 썩은 것이 있거나 부실하면 책임이 따랐다. 내의원에 진상한 인삼이 품질 불량하자 경상도 관찰사가 파직된 경우도 있다.¹²⁵⁾

제주에서 6월초에 부친 전복 진상품이 그해 7월 27일 도착하였는데, 중궁전과 세자궁에 들어갈 전복은 바다에 빠졌고 대전에 가는 추복은 54첩 중에서 40첩이, 인복은 54주지 중에서 3주지가 상하였고 대왕대비전에 가는 것은 추복 120첩 중에서 90첩이 상하였으니 당연히 제주목사에게 죄를 물었다.¹²⁶⁾ 진상하는 제주에서 서울의 뱃길이 50여 일이나 걸렸고 말린다고 한 전복이(추복의 경우에) 75%나 부패한 것이었다. 이러다 보니 제주에서는 토산품을 나주 제민창(濟民倉)으로 납부하기를 원했던 사례도 있다. 서해를 거슬러 올라가는 해로는 칠산(七山)의 험한 바다를 거치게 되어 침몰의 우환이 많았던 탓이라 보고한다.¹²⁷⁾

121) 『中宗實錄』65券, 中宗24年 4月 4日 己巳. 「濟州進上載持領船金根壽等 所騎船隻 三月初八日 倭船相逢 雜物盡數被奪 高世傑等七八名 刀劍被傷 其餘無傷」.

122) 『中宗實錄』32券, 中宗 13年 3月 9日 戊申. 「臣頃者適見濟州貢物 分三四道輸來濟州絕島也 王化所不及處, 其所載來之物 如此其猥濫 則小地之民必不得聊生如果實等物 請或蠲減 上曰 濟州近來至爲疲弊 當使之蘇復 而果實進上 則有常定之數矣 其載私物之弊 則固不可也 楊震曰 濟州全馭之產今則不如古矣但於詳定有大中小之分 故該司依例而受之」.

123) 『世宗實錄』36券, 世宗 9年 6月 10日 丁卯. 「濟州多所產 每朔進膳之時 兼帶私物 進馬之時 多挾私馬 以煩驛路 以汚土風 臣謂 濟州進膳與馬 依他道進上檢察例 所過各驛丞及察訪 驗文搜探 如有私挾 傳報監司論罪」.

124) 『高宗實錄』21券, 高宗 21年 6月 27日 己亥. 「該牧使沈賢澤牒呈內 進獻 陸運 誠爲萬全之策 而沿路各邑 不節替傳 每至腐傷 蓋船運則幸值利豎 可期一朔抵泊 設若阻風遲滯 腐傷則一也 而民國之冗費 大減於陸運 故定以船運 分排兩隻 則所費爲八百兩 云矣」.

125) 『正祖實錄』37券, 正祖 17年 5月 27日 戊午. 「罷慶尙道觀察使鄭大容職 以內醫院進貢人蔘品劣也 牒報以爲 駕海之路 經過七山險洋 多有臭載之患 故一島民情 皆願移納於羅州」.

126) 『承政院日記』英祖 12年 7月27日 己未.

127) 『正祖實錄』22券, 正祖 10年 10月 5日 乙巳. 「耽羅移粟時 土產雜物 納于羅州濟民倉便否 令道臣論啓矣該監司沈頤之 枚舉三邑」.

지방에서 진상된 진상품은 그 용도에 따라 각사(各司)로 나누어져 담당되었다.¹²⁸⁾ 전복과 관련된 각사는 사재감, 내수사, 수진방(壽進坊) 등이 있었다. 진상 전복들은 사재감이 관장하였으며 내수사의 것은 선세(船稅)에 해당되는 대전복 1,600개, 노비(奴婢)공물로 대전복 450개가 수진방에 바쳐진 것이었다. 사재감은 어류, 육류, 소금 등의 진상품을 관장하는 곳이었으니 전복을 취급하는 게 당연하였지만 왕실재산을 관리하는 내수사나 한성부의 일개조직이었던 수진방에서도 전복을 받았다는 것은 조선후기에 들어서서 필요한 전복을 다양한 경로로 조달 진상하였던 것이다.

서울에서 공물을 접수하는 것은 선초(朝初)부터 제도화되어 있었다. 지방에서 바치는 공물의 명세서(陳省)를 본조(本朝)에서 제출하면 본조에서는 제출날짜, 물명, 수량을 등록하여 대조를 끝낸 다음 각사로 보낸다. 각사의 관리들이 공물을 직접 받은 다음 받았다는 증명서(明文)를 밀봉하여 본조에 제출하면 본조에서는 그것을 조사하여 장부에 올린 다음 공물을 주관하는 아전에게 준다. 한편 공물을 바치는 지역에서는 공물을 주관하는 아전으로 식견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공물의 수량, 바치게 되는 관청이름, 출발날짜와 시간, 공물을 주관하는 아전의 성명을 기록하여 본조에 제출한다. 이것을 가지고 본조에서는 노정의 거리를 따져보고 기한 내에 올라 오지 못한 것에 죄를 묻는다는 식이었다.¹²⁹⁾ 그것을 보관했던 호조의 의영고(義盈庫)는 넘쳐 곱팡이가 슬 정도였다. 거뒀을 지 몇 해가 된 전복을 다시 팔기도 했던 사례가 있다.¹³⁰⁾

128) 1653년(자료 :『탐라지』) 당시 제주도에서 진상한 물품들이 각사에 할당된 것은 다음과 같다.

擔當 各司	進上物品
工曹	玳瑁, 鹿子皮, 螺田鮑甲
奉常寺	香
軍器寺	將軍箭, 馬筋, 隨故失數輪納
尙衣院	梔子
繕工監	梔子板
司宰監	大灰鰓 1,910貼, 中灰鰓 1,555貼, 小灰鰓 1,103貼
典醫監	靑皮, 香附子, 陳皮, 海桐皮, 半夏, 梔子
惠民署	靑皮, 香附子, 玳瑁, 枳殼(지각), 厚朴, 海桐皮, 陳皮
內需寺	奴婢貢中鹿皮, 首髮, 香, 藿, 船稅大全鰓 1,600箇, 柑子, 隨結實
內膳寺	香, 牛毛
義盈庫	藿
掌苑署	梔子, 金橘, 山橘, 靑橘, 洞庭橘, 柑子, 乾柑
壽進坊	奴婢貢 大全鰓 450箇, 香

129) 田川孝三, 앞의 책, 42~47쪽 참조.

2. 진상 전복의 용도

진상된 전복은 다양한 용도로 이용 및 활용되었다. 첫째, 제사에 사용되었다. 곧 중요한 국가의 제사에 제물로 전복이 이용된 것이다. 정조때 왕이 중요 일정이었던 제사때 영접도감이 보고한 칙사 유제(諭祭) 제물의 기수에 대한 별단(別單)에 전복 포함되어 있다.¹³¹⁾ 살아 있는 사람보다도 국가의 제사는 중요하게 여겨진 만큼 말려진 큰 전복이 소모 되었고 진상을 받는 명목도 되었다. 제사에 사용되는 인복은 큰 것을 이용한 것으로 보다 깊은 바다로 나가야 잡히는 것이다.¹³²⁾

둘째, 선물로 이용되었다. 고급선물이었으니 뇌물로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연산군때 유자광이 사사로이 이것을 바쳤던 것이다. 아울러 국왕에게 바치는 것을 진상이라고 하면 당시로선 한 단계 위의 개념으로 조선 국왕이 중국황제에게 바치는 것을 진헌(進獻)이라 하였다. 진헌 품목에 전복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것이다. 『만기요람』을 보면 전복이 품목으로 규정화 되어있던 것이다.¹³³⁾ 중국황제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성종때 한치형이 가지고가는 별진헌(別進獻)품목에는 조선에서 준비한 선물 속에는 건전복 500묵음이 포함되고 있었다.¹³⁴⁾ 연행록에 보면 청나라 관리에게까지 전복을 선물하고 있다.

셋째, 약재로도 사용 하였는데 건전복인 아닌 생복까지 내의원(內醫院)에 별진상 하였다. 아마 생복은 보양제로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¹³⁵⁾

넷째, 궁중에서 음식으로 이용하였다. 전복을 궁중 내에서 담당 한 부서는 전술하였던 사재감(司宰監)이었다. 그곳의 전복은 식재료가 되어 왕의 식사에 제공되었으며 음식은 사옹원(司饗院)에서 관장하였다. 『增補山林經濟』, 권 9, 治善 下의 내용에 전복 요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다. 즉, 전복(말려진 것)은 칼로 베어 먹었으며

130) 『世宗實錄』28券, 世宗 7年 6月 14日 壬子. 「戶曹據義盈庫呈啓 庫在眞油 海菜 淸蜜 榧子 榛子 菓古 全鮑, 因收納年久, 將爲無用, 請令民納錢買賣」.

131) 『日省錄』 正祖 10年 8月 8日 戊申.

132) 『成宗實錄』49券 成宗 15年 11月 28日 己卯. 「諸道濱海官所貢引鰻圓全鰻可造者 須採於深遠絕島 若嚴禁則無處可得 今後大鰻採取之時 令各道觀察使」.

133) 황제에게 전복 20貼, 황후에게 전복10貼이 방물 품목에 명기되어 있다. 『萬機要覽』財用編 5, 別使方物條.

134) 『成宗實錄』95券 成宗 9年 8月 13日 壬寅. 「韓致亨 齋去別進獻 (중략) 乾全鰻魚五百束 乾烏賊魚三十斤 乾廣魚五百尾 乾秀魚三百尾 昆布四百斤 塔土麻三百斤 海衣一百斤 海菜耳一百斤 石菌一百斤 因皇帝之勅也」.

135) 『純祖實錄』2券 純祖 1年 1月 28日 乙巳.

생복은 초장과 함께 회로 먹거나 삶아 먹었다. 또 칼로 주사위처럼 썰고 원 껍질안에 담아 장을 넣어 끓이거나 구이를 만든다. 말린 전복을 물에 불려 얇은 조각으로 만들어 잣을 싸서 월병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젓을 담가 먹기도 하였고 반쯤 익혀도 맛은 좋았다. 말린 전복은 짠맛이 많아 소금기를 빼고 삶아 먹는다. 작거나 중간 크기의 것들은 빛깔이 노랗고 싱거운 것이 좋다. 어떤 효부(孝婦)가 이빨 없는 시아버지를 위해 전복을 햇볕에 쪄서 치한으로 가루를 내어 나무판에 전복모양으로 판 다음 가루를 물에 개어 찍어내어 드렸더니 두부처럼 부드럽고 전복 맛은 그대로였더라는 옛이야기도 있다. 말린 접복을 철판위에 쳐서 종이처럼 납작하게 만든 것은 노인도 쉽게 먹을 수 있었다.¹³⁶⁾

『음식디미방』에서는 전복을 무르게 고아 말려뒀다가 간장 기름국에 쓰면 좋다고 하였다. 실제로 요리의 종류들은 생복회, 생복어음적, 절전복, 전복, 전복숙(全鮔熟), 추복탕(追鮔湯) 등 다양하였다.¹³⁷⁾ 전복 요리는 멀리 여행 중에서도 준비되어 졌으니 ‘원행을묘정리의궤’ 수라상에 전복구이와 전복만두탕이 차림에 들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죽수라상 조반에는 생복까지 바쳐졌던 것이다.¹³⁸⁾

136) 유중립, 윤숙자 역, 『증보산림경제』, 지구문화사, 2005, 374쪽.

137) 이은옥, 『조선후기 식기 및 음식의 특색과 변화』, 이화여대, 2002, 68쪽.

138) 한복진, 『조선시대 궁중의 식생활문화』, 서울대출판부, 2008, 135~137쪽.

VI .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시대의 전복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장 및 보관 방법, 가공에 따라 전복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게 지칭되었다. 복(鮑), 복어(鮑魚)를 기본으로 신선한 생전복인 생포(生鮑), 생복(生鮑), 큰 전복의 의미인 대전복(大全鮑), 산지표시가 더해진 왜전복(倭全鮑)이 있다. 소금에 절이고 말리는 가공 상태에 따라서 불려진 전복명으로는 건전복(乾全鮑), 반건전복(半乾全鮑), 염전복(鹽全鮑), 건복단인(乾鮑短引), 무염생복(無鹽生鮑), 반염전복(半鹽全鮑)이 있다. 또한, 가공과정을 거친 전복 진상품의 명칭으로 인복(引腹)과 인포(引鮑), 세인복(細引鮑), 추포(追鮑), 추복(追鮑), 조포(條鮑), 조복(條鮑) 등이다. 그리고 껍질이 달려있는 채 싱싱하게 한 유갑전복(有匣全鮑), 회전복(灰全鮑), 모양이 큰 원전복(圓全鮑) 등이 있다.

둘째, 전복의 생산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평안도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았다. 전국의 진상품 중 전복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각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전복 생산은 가능하지만, 진상품에 포함된 여부가 불분명한 곳도 있었고, 진상된다 하더라도 물량 확인이 곤란한 지역도 없지 않았다. 한편 각 지방에서의 지역별, 종류별 전복 물량의 단위가 통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어물의 계수 단위의 철저한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¹³⁹⁾

셋째, 전복 진상 물량은 제주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국에서 진상하는 전복 물량의 9할 이상을 제주도가 담당하였다. 심지어는 전라도·경상도 등의 전복 진상품 등도 제주에서 생산된 것을 조달하여 이용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 제주도는 전복 진상품의 주요 조달지였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전복 진상 외에 공마, 감귤 등 진상부담이 가중되어 경제적으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

넷째, 전복 진상품의 조달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땅 위에서 생산되는 토산물이 아니라, 바다 깊은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생복으로 바쳐야

139) 전복 수량을 헤아리는 단위로 쓰인 것들은 개(箇, 介), 주지(注之), 속(束), 첩(貼), 두(斗), 승(升), 합(合)관(串), 줄기, 접, 묶음, 단 등이 있었다.

하는 경우에는 저장 방법, 수송 기간 등 많은 문제가 뒤따랐다. 바다에서 나잠물질을 통해 전복을 채취하는 업무는 주로 제주도 사람들인 포작과 잡녀의 몫이었다. 이들의 진상액 마련을 위해 처자식을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고, 심지어는 제주에서 도망을 선택하는 등 고역(苦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다섯째, 진상경로와 그 보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제주에서 출발하여 전복 진상품을 수송하는 것도 험난한 일이었다. 바다를 건너고 긴 육로를 거쳤으며 식품이니만큼 신경 써야 했던 일이 많았다.

여섯째, 전복은 귀한 제물로 이용되었고 중국에 바치는 선물로 이용되었다. 궁중 음식은 전복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로 조리되었다. 바치는 전복을 조달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이었고 그것을 이용하는 궁중의 세계가 호사스러웠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극과 극이었던 셈이었다. 다시 말해 전복을 통해 어두웠던 조선시대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조선시대 이전의 전복조달, 여러 지방과 계층이 사용하는 전복의 계수단위, 조선시대 이후 근현대 전복 조달과 이용 실태의 조명, 제주도 해녀들의 전국 진출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되었으면 한다. 과거 역사가 전복의 소비자였던 국왕중심이었다면 각 지방의 지방 사료를 포함한 역사적 사료와 문헌의 조사는 물론 전복 생산층의 고단했던 삶의 족적을 밝히는 것은 보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新增東國輿地勝覽』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日省錄』

『與地圖書』

『萬機要覽』

『貢膳定例』

『濟州邑誌』

이원진, 『耽羅志』

이수광, 『昇平誌』

홍증지, 『新增昇平誌』

김윤식, 『順天續誌』

허균, 『惺所覆瓿藁(성소부부고)』

이형상, 『南宦博物』

이형상 『耽羅巡歷圖』

이익, 『星湖僊說』

김려, 『牛海異魚譜』

정약전, 『茲山魚譜』

빙허각 이씨, 『閨閣叢書』

유중립, 『增補山林經濟』

고창석 외,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오창명 외, 『역주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서귀포시편, 『제주계록』, 서귀포시, 1995

2. 단행본

경북대출판부, 『음식디미방』, 2010.

권인혁, 『조선시대 화폐유통과 사회경제』, 경인문화사, 2011.

김경옥, 『조선후기 도서(島嶼)연구』, 혜안, 2004.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2』, 일조각, 1989.

부경대연구소, 『조선시대 해양환경과 명태』, 국학자료원, 2009.

서인원, 『조선초기 지리지 연구』, 혜안, 2002.

이은옥, 『조선후기 식기 및 음식의 특색과 변화』, 이화여대, 2002.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정진술, 『한국의 고대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생활사』, 역사비평사, 2002.

한복진, 『조선시대 궁중의 식생활문화』, 서울대출판부, 2008.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1964.

徳成外志子, 『조선후기 공납청부제와 중인층공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3. 연구논문

고동환, 「18세기 서울에서의 어물유통구조」, 『한국사론』28, 서울대 국사학과, 1992.

권인혁·김동진, 「조선후기 제주지역 수취체제와 주민의 경제생활」, 『탐라문화』 19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6.

권인혁, 「조선후기 지방관아의 운영실상-제주사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16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6.

김갑영, 「조선시대 중기의 수산물 이용에 관한 문헌 고찰」,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07.

김나영,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탐라문화』3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김동전, 「18·19세기 답한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분석」, 『역사민속학』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 김동전, 「제주도 공물진현에 관한 고찰-조선왕조를 중심으로」 『제주사학』창간호, 제주대 사학과, 1985.
- 김영주, 「조선시대의 해세에 관한 일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3
- 김업식, 「조선시대 부식류의 조리법에 관한 문헌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일기, 「조선초기 진상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김정숙, 「제주도 해너복 연구」, 이화여대, 1989.
- 박주희, 「조선후기 경상도 해산 진상품 연구」,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찬식, 「19세기 제주지역 진상의 실태」, 『탐라문화』1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6
- 배재수, 「조선전기 국용임산물의 수취 - 전국지리지의 임산물을 중심으로」, 『한국임학회지』 93-3호, 한국임학회, 2004.
- 소순규, 「조선전기 지리지 물산항목의 편제방식과 공물수취의 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안미정,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한양대, 2007.
- 오미일, 「18, 19세기 공물정책의 변화와 공인층의 변동」, 『한국사론』14권, 서울대 국사학과, 1985.
- 이기봉, 「조선시대 전국지리지의 생산물항목에 대한 검토」, 『조선시대국용임산물』, 국립산림과학원, 2004.
- 이영학, 「조선후기 어세정책의 추이」, 『외대사학』12,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00.
- 이영학, 「조선후기 어업에 대한 연구」, 『역사와 현실』35, 한국역사연구회, 2000.
- 이영학, 「조선후기 어물의 유통」, 서울대학교, 『한국문화』 27권, 2001.
- 長森美信, 「조선후기 제주 진상물 조달과 수송」, 『탐라문화』23호, 2002.
- 장윤희, 「조선후기 제주도 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정미정, 「조선시대 제주과원 설치와 감귤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지두환, 「효종대 대동법 논의」, 『한국사상과 문화』10권, 한국사상문화학회, 2000.
- 현윤옥, 「조선시대 중기의 수산물 이용에 관한 문헌고찰」,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황선영, 「조선초기 진상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83.

<부록 1> 『세종실록지리지』에 실린 전국 전복산지 각 지역의 토공, 토산품목

도별	지역		토공 품목	
충청도	홍주목	태안군	(土貢) 가는대[篠]·왕대[蕩]·지초·죽제비털·여우가죽·종이·어교(魚膠)·황각(黃角)·참가사리[細毛]·송어·민어·상어·홍어·큰새우. (土産)김[海衣]·해청(海靑)·낙지·생복[生鮑]	
경상도	경주부	울산군	꿀·밀[黃蠟]·칠[漆]·종이·가는 대[篠]·왕대[蕩]·여우가죽·삼가죽·노루가죽·어피(魚皮)·점찰피(占察皮)·지초(芝草)·작설차(雀舌茶)·마른 죽순(乾竹筍)·표고버섯·오해조(吾海曹)·미역·세모(細毛)·김[海衣]·청각(靑角)·전포(全鮑)·건합(乾蛤)·홍어(洪魚)·흑백바둑돌	
		홍해군	미역[藷]·우무[牛毛]·모래무지[沙魚]·전포(全鮑)·건합(乾蛤)·여우가죽·삼가죽·노루가죽	
		동래현	가는 대[篠]·왕대[蕩]·종이·지초(芝草)·표고버섯·꿀·석류·비자(榧子)·오해조(吾海曹)·미역·우모(牛毛)·세모(細毛)·김[海衣]·조곽(早藿)·청각(靑角)·해삼·건합(乾蛤)·생포(生鮑)·모래무지[沙魚]·대구어(大口魚)·청어(靑魚)·방어(魴魚)·어교(魚膠)·여우가죽·삼가죽·노루가죽·사슴가죽·점찰피(占察皮)·어피(魚皮)	
		기장현	꿀·밀[黃蠟]·표고버섯·김·우모(牛毛)·세모(細毛)·마른 조개[乾蛤]·모래무지·전포(全鮑)·종이·노루가죽·여우가죽·점찰피(占察皮)·어피(魚皮)	
		장기현	꿀·밀[黃蠟]·칠·송이버섯·전포(全鮑)·모래무지·마른 조개[乾蛤]·광어(廣魚)·홍합(紅蛤)·미역·김·우모(牛毛)·여우가죽·노루가죽·사슴가죽	
		영일현	칠[漆]·마른 노루고기·마른 사슴고기·전포(全鮑)·마른 조개[乾蛤]·광어(廣魚)·청어·모래무지[沙魚]·송이버섯·지초(芝草)·죽순(竹筍)·미역·김·가는 대·왕대·노루가죽·삼가죽·수달피(水獺皮)·어피(魚皮)이요, 약재(藥材)는 방풍(防風)·맥문동(麥門冬)	
	안동도 호부	청하현	꿀·밀[黃蠟]·칠·종이·미역·대구·광어·모래무지·전포(全鮑)·마른 조개·여우가죽·노루가죽	
		안동도 호부 영덕현	꿀·밀[黃蠟]·칠·종이·여우가죽·삼가죽·산달피(山獺皮)·돼지털·지초(芝草)·미역·대구어(大口魚)·모래무지·전포(全鮑)·홍합(紅蛤)이며, 약재(藥材)는 방풍(防風)·맥문동(麥門冬)·인삼	
		진주목	고성현	꿀·밀[黃蠟]·표고버섯·송이버섯·작설다(雀舌茶)·모래무지·건합(乾蛤)·대구·문어·생포(生鮑)·도음어(都音魚)·미역·우무[牛毛]·세모(細毛)·어교(魚膠)·왕대[蕩]·지초·종이·칠·사슴가죽·여우가죽·삼가죽·노루가죽·산달피(山獺皮)
			거제현	대구어·문어·생포(生鮑)·미역·우무[牛毛]·표고버섯·세모(細毛)
			사천현	(土産)미역·청각(靑角)·우무[牛毛]·세모(細毛)·해삼·생포(生鮑)·홍어(洪魚)·문어·황어(黃魚)·은구어·대구어
			하동현	(土貢)꿀·밀[黃蠟]·표고버섯·김·건합(乾蛤)·칠·종이·왕대[蕩]·사슴가죽·노루가죽·삼가죽 (土産)작설다(雀舌茶)·생포(生鮑)·은구어·문어·모래무지·홍어(洪魚)·우무[牛毛]·세모(細毛)·미역·주토(朱土)·대구어
진해현	꿀·밀[黃蠟]·칠·종이·사슴가죽·산달피(山獺皮)·여우가죽·표고버섯·작설다(雀舌茶)·왕대[蕩]·어교(魚膠)·문어·모래무지·생포(生鮑)·홍합·대구어·분곽(粉藿)·세모(細毛)			
전라도	나주목	해진군	여우가죽·삼괘이가죽·죽제비털[黃毛]·녹용·칠·꿀·밀[黃蠟]·표고(蕈膏)·전복·홍합·분곽(粉藿)·상곽(常藿)·석이·자리·지초(芝草)·가위 톱[白斂]·속돌[水泡石]·비자(榧子)	
		영암군	여우가죽·삼괘이가죽·잘·수달가죽·사슴뿔·죽제비털·꿀·밀[黃蠟]·칠·송어·전복·표고·분곽(粉藿)·석이·죽순·작설차·지초·비자·자리(席)	
		강진현	여우가죽·삼괘이가죽·죽제비털·지초·작설차·전복·상곽(常藿)·표고·석이·비자·칠	

	장흥도 호부	순천도 호부	범가죽·삼팽이가죽·여우가죽·잘·족제비털·칠·감·굴·석류·배·매화·분곽(粉藿)·꿀·밀[黃蠟]·대추·지치·죽순·상어·전복·홍합·붉은 큰새우·차[茶]·표고·목화·오죽·대방석
제주도	제주목	제주목	대모(玳瑁)·표고·우무[牛毛]·비자·감굴·유자·유감(乳柑)·동정굴(洞庭橋)·금굴(金橋)·청굴(靑橋)·돌굴[山橋]·전복·인포(引鮑)·추포(槌鮑)·조포(條鮑)·오징어·옥두어(玉頭魚)·곤포(昆布)·돌유자나무[山柚子木]·이년목(二年木)·비자나무[榧子木]·좋은 말(良馬)
		정의현	대모(玳瑁)·표고·우무[牛毛]·미역·다시마·감굴·청굴(靑橋)·비자·추포(槌鮑)·조포(條鮑)·오징어·옥두어(玉頭魚)·전복
		대정현	복·표고·우무·미역·다시마·비자·감굴·유감(乳柑)·동정굴(洞庭橋)·청굴(靑橋)
강원도	강릉도 호부	양양도 호부	꿀·밀[黃蠟]·갯·호도·복나무충영·지초·석이·여우가죽·삼팽이가죽·노루가죽·대구·문어·상어·연어·전복·홍합·송어·상떡·자리·시우쇠
	삼척도 호부	평해군	꿀·밀[黃蠟]·호도·지초·상떡·오배자(五倍子)·칠·석이·송어·대구·문어·전복·홍합·사슴포·여우가죽·삼팽이가죽·해달피(海獺皮)·노루가죽
		울진현	꿀·밀[黃蠟]·칠(鐵)·호도·석이·오배자(五倍子)·조피나무열매[川椒]·미역·칠·사슴포·여우가죽·삼팽이가죽·노루가죽·범의 가죽·돼지털·대구·문어·송어·전복·홍합
	간성군	고성군	꿀·밀[黃蠟]·시우쇠·오배자(五倍子)·지초·느타리·석이·바디나물뿌리[前胡]·호도·칠(漆)·여우가죽·삼팽이가죽·노루가죽·수달피·잘·돼지털·곰의 털·대구·문어·연어·상어·송어·홍합·전복·전복껍데기·미역
		통천군	꿀·밀[黃蠟]·시우쇠·상떡·오배자(五倍子)·호도·지초·느타리·석이·조피열매[川椒]·담비가죽·삼팽이가죽·노루가죽·수달피·잘·문어·송어·대구·연어·상어·전복·홍합·전복껍데기·돼지털
		흡곡현	꿀·밀[黃蠟]·시우쇠·상떡·오배자(五倍子)·느타리·조피나무열매[川椒]·전복껍데기·삼팽이가죽·노루가죽·곰의 가죽·수달피·문어·대구·상어·송어·전복·홍합
함길도	함흥부	북청도 호부	(土産) 초서피(貂鼠皮)·녹반(綠礮)·석철(石鐵)·문어·송어·대구·연어·방어·고등어·황어·전복·미역 (土貢) 표범가죽·아양사슴가죽·아양사슴뿔[阿羊鹿角]·삼가죽·여우가죽·잇[紅花]
	영흥도 호부	예원군	(土産)족제비털·대구·연어·고등어·황어·송어·행어(行魚)·전복·생복(生鮑)·홍합(紅蛤)·참가사리[細毛]·우무[牛毛]
	안변도 호부	안변도 호부	(土産) 금(金)·족제비털·송어·고등어·연어·굴[石花]·바닷조개[海蛤]·전복
	길주목	길주목	(土産) 사철(沙鐵)·백반(白礮)·녹반(綠礮)·담비가죽·서피(鼠皮)·족제비털·대구·연어·송어·황어·행어·방어·수이지어(愁伊只魚)·전복·다시마·미역·곤포(昆布)·느타리·석이(石茸)
		단천군	(土産) 금·석철(石鐵)·족제비털·송어·대구·연어·방어·황어·은어·전복·갯·미역·다시마

<부록 2> 『공선정례』의 전복 진상 내역

* 수량은 공선정례의 기록된 단위 따랐으나 합계에서는 개로 환산함

1) 충청도

區分	月令	品名	數量
大殿	정월	有匣生鰻	300箇
	9월	生鰻	300개
王大妃殿	정월	有匣生鰻	250개
	9월	生鰻	250개
惠慶宮	정월	有匣生鰻	200개
	9월	生鰻	200개
中宮殿	정월	有匣生鰻	150개
	9월	生鰻	150개
世子宮	정월	有匣生鰻	150개
	9월	生鰻	150개
冬至大殿		生鰻	300개
王大妃殿		生鰻	250개
惠慶宮		生鰻	200개
誕日大殿		生鰻	300개
王大妃殿		生鰻	250개
惠慶宮		生鰻	200개
合計			3,600개

2) 전라도

區分	月令	品名	數量	
大殿	정월	全鰻	3貼	
	3월	전복	3첩	
	4월	전복	2첩	
	5	전복	3첩	
	6	전복	2첩	
		長引鰻	10注之	
	8	전복	3첩	
	10	전복	3첩	
	11	전복	3첩	
	王大妃殿	정월	전복	2첩
		3	전복	2첩
4		전복	1첩	
5		전복	2첩	
6		전복	1첩	
		장인복	8(捌)주지	
8		전복	2첩	
10		전복	2첩	
11		전복	2첩	
12		전복	2첩	
惠慶宮		정월	전복	1첩
	3	전복	2첩	
	4월	전복	1첩	



	5	전복	2첩
	6	전복	1첩
		장인복	7주지
	8	전복	2첩
	10	전복	2첩
	11	전복	2첩
	12	전복	2첩
中宮殿	정월	전복	1첩
	3	전복	1첩
	4	전복	1첩
	5	전복	1첩
	6	전복	1첩
		장인복	5주지
	8	전복	1첩
	10	전복	1첩
	11	전복	1첩
	12	전복	1첩
世子宮	정월	전복	1첩
	3	전복	1첩
	4	전복	1첩
	5	전복	1첩
	6	전복	1첩
		장인복	5주지
	8	전복	1첩
	10	전복	1첩
	11	전복	1첩
	12	전복	1첩
正朝 大殿		전복	5첩
王大妃殿		전복	4(肆)첩
惠慶宮		전복	3첩
中宮殿		전복	3첩
世子宮		전복	2첩
冬至大殿		전복	5첩
王大妃殿		전복	4첩
惠慶宮		전복	3첩
中宮殿		전복	2첩
世子宮		전복	2첩
誕日大殿		전복	5첩
		장인복	10주지
王大妃殿		전복	4첩
		장인복	8주지
惠慶宮		전복	4첩
		장인복	7주지
中宮殿		전복	2첩
		장인복	5주지
世子宮		전복	2첩
		장인복	5주지
合計			8,520개

3) 함경도 : 등재된 품목, 물량 없음

4) 황해도

區分	月令	品目	數量
大殿	10월	생복	300개
王大妃殿	10월	생복	270개
惠慶宮	10월	생복	250개
中宮殿	10월	생복	230개
世子宮	10월	생복	200개
合計			1,250

5) 강원도: 등재된 품목, 물량 없음

6) 경상도

區分	月令	品目	數量
朔膳 大殿	4월	건복단인	15첩
	6	전복	7첩
王大妃殿	4	건복단인	12첩
	6	전복	6첩
惠慶宮	4	건복단인	10첩
	6	전복	6첩
中宮殿	4	건복단인	7첩
	6	전복	5첩
世子宮	4	건복단인	7첩
	6	전복	4첩
端午 大殿		전복	10첩
王大妃殿		전복	8첩
惠慶宮		전복	7첩
中宮殿		전복	6첩
世子宮		전복	5첩
誕日大殿		전복	10첩
王大妃殿		전복	8첩
惠慶宮		전복	7첩
中宮殿		전복	6첩
世子宮		전복	5첩
合計			15,100개

7) 제주 지역

區分	月令	品目	數量
大殿	2월	추복	30貼
		조복	30첩
		인복	30주지
	3	추복	30첩
		인복	27주지
	4	추복	80첩



		인복	54주지
	5	추복	80첩
		인복	54주지
	6	추복	55첩
		인복	54주지
	7	추복	54첩
		인복	54주지
	8	추복	54첩
		인복	54주지
	9월	추복	54첩
		인복	27주지
王大妃殿	2월	추복	30첩
		조복	30첩
	3	추복	30첩
	4	추복	60첩(陸拾)
	5	추복	60첩
	6	추복	50첩
	7	추복	50첩
	8	추복	50첩
	9	추복	30첩
惠慶宮	2	추복	28첩
		조복	28첩
	3	추복	28첩
	4	추복	55첩
	5	추복	55첩
	6	추복	45첩
	7	추복	45첩
	8	추복	45첩
	9	추복	28첩
中宮殿	2	추복	25첩
		조복	25첩
	3	추복	25첩
	4	추복	50첩
	5	추복	50첩
	6	추복	40첩
	7	추복	40첩
	8	추복	40첩
	9	추복	27첩
世子宮	2	추복	25첩
		조복	25첩
	3	추복	25첩
	4	추복	50첩
	5	추복	50첩
	6	추복	40첩
	7	추복	40첩
	8	추복	40첩
	9	추복	27첩
合計			189,340개